2023. 12.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 동향 I 제40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기술경제 동향 |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경제 현안 |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NABO 경제 동향」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 동향」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12월호 통권 제40호

Contents

Ⅰ 지출

1. 소비 06
2. 투자 08
3. 대외거래 13
4. 소비자물가 16

Ⅱ 생산·고용·인구

1. 생산 20
2. 고용 32
3. 인구 36

Ⅲ 금융·자산·재정

1. 금융시장 40
2. 에너지 및 원자재 43
3. 부동산 50
4. 재정 52

Ⅳ 해외경제

1. 미국 58
2. 중국 61
3. 유로지역 63
4. 일본 65
5. 글로벌 금융 67

Ⅴ 기술경제 동향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72

Ⅵ 경제 현안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7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대외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가 감소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

반도체 경기개선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투자여건 악화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

10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3 → (9월)0.1 → (10월)-0.8**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3 → (9월)2.3 → (10월)-3.1
-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7.2로 전월대비 하락하여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8월)4.1 → (9월)8.7 → (10월)-3.2**

11월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4.4 → (10월)5.1 → (11월)7.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9월)-16.5 → (10월)-9.7 → (11월)-11.6**
- **무역수지(억달러): ('23.9월)37.0 → (10월)16.3 → (11월)38.0**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내수부진 속에 물가상승세는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3.8 → (11월)3.3**

10월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로는 1.6% 감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철강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금융 · 보험업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서비스업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숙박 · 음식점업(-5.2%), 도소매업(-3.7%), 부동산업(-1.3%) 등은 감소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증가

- **11월 취업자 수 증가는 전월(34.6만명)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27.7만명**
- **(계절조정)실업률(10월 2.5%, 11월 2.8%)은 증가, 고용률(10월 63.3%→63.1%)은 감소**

1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주요국 「국채금리」가 모두 하락

- **대외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와 환율이 하락**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9월말)3.88 → (10월말)4.09 → (11월말)3.58
  - 원/달러 환율: (9월말)1,345 → (10월말)1,353 → (11월말)1,289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도 하락**
  - 11월말 국채(10년) 금리는 미국 4.33%로 전월대비 0.60%p 하락한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업종별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2Q	3Q	10월	11월
전산업생산	5.3	4.6	5.2	5.6	5.5	1.9	1.2	-0.5	0.8	1.0	-
제조업생산	8.4	1.4	6.0	5.6	1.4	-6.7	-10.0	-7.8	-2.2	1.2	-
서비스업생산	5.0	6.7	5.6	6.8	8.5	5.8	6.4	2.3	1.9	0.8	-
소매판매액	5.8	-0.3	2.6 (-1.2)	-0.2 (-0.4)	-0.9 (0.6)	-2.3 (-1.4)	-0.4 (1.1)	-0.2 (-0.3)	-2.8 (-2.6)	-4.4 (-0.8)	-
설비투자지수	9.6	3.3	-1.3 (0.4)	-2.4 (-0.4)	7.5 (8.6)	9.6 (-0.2)	-0.5 (-8.8)	-1.2 (1.3)	-10.5 (-3.5)	-9.7 (-3.3)	-
건설기성액	-6.7	2.7	-1.7 (0.2)	2.0 (-0.4)	3.5 (1.0)	6.4 (4.9)	11.5 (4.6)	8.9 (-0.8)	10.5 (1.0)	4.1 (0.7)	-
수출(통관)	25.7	6.1	18.4	13.0	5.8	-10.0	-12.8	-12.0	-9.7	5.1	-
수입(통관)	31.5	18.9	30.2	23.0	22.6	3.1	-2.2	-13.2	-21.6	-9.7	-
경상수지(억달러)	852.3	298.3	148.8	99.9	8.8	40.8	-45.7	70.1	141.4	68.0	-
소비자물가	2.5	5.1	3.8	5.4	5.9	5.3	4.7	3.2	3.1	3.8	3.3
취업자수 증감(천명)	369	816	1,001	880	780	604	397	346	263	346	277
실업률	3.7	2.9	3.5	3.0	2.5	2.6	3.2	2.7	2.3	2.1	2.3
원/달러환율	1,144	1,292	1,211	1,293	1,435	1,267	1,304	1,313	1,345	1,353	1,289
국고채금리(3년)	1.39	3.20	2.66	3.55	4.19	3.72	3.27	3.66	3.88	4.09	3.58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1134/1

지 출

10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감소 전환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3 → (9월)0.1 → (10월)-0.8
- 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4 → (10월)1.0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9 → (10월)4.3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3 → (9월)2.3 → (10월)-3.1

10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서 줄어들며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8월)4.1 → (9월)8.7 → (10월)-3.2

10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 공사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축 공사가 늘어나며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8월)2.5 → (9월)0.2 → (10월)0.7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8월)0.8 → (9월)-3.9 → (10월)1.3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8월)8.8 → (9월)14.1 → (10월)-1.0

11월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4.4 → (10월)5.1 → (11월)7.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9월)-16.5 → (10월)-9.7 → (11월)-11.6
- 무역수지(억달러): ('23.9월)37.0 → (10월)16.3 → (11월)38.0

1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3.8 → (11월)3.3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6 → (10월)4,7 → (11월)3.8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2.9 → (10월)3.0 → (11월)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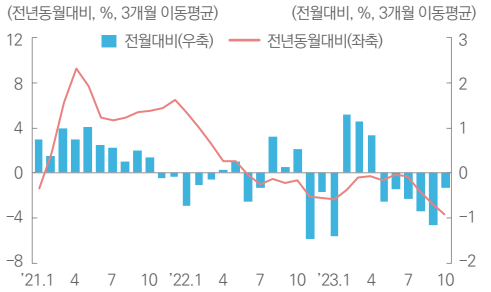
1 소비

10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증가 전환되었으나 비내구재가 큰 폭으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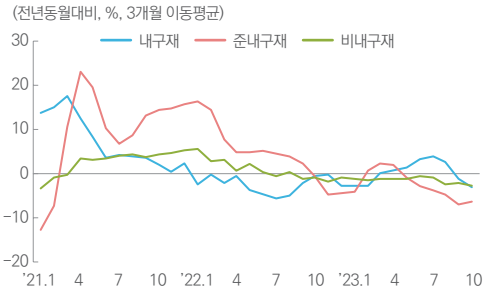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3 → (9월)0.1 → (10월)-0.8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0 → (9월)0.0 → (10월)-0.6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대비 1.0% 증가**

- 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4 → (10월)1.0
- 승용차(전월대비, %): ('23.8월)-2.4 → (9월)0.8 → (10월)-1.8
- 가전제품(전월대비, %): ('23.8월)1.1 → (9월)-3.9 → (10월)-2.5
-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 ('23.8월)5.8 → (9월)-10.6 → (10월)12.0

■ **준내구재는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주요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4.3% 증가**

- 준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9 → (9월)-2.9 → (10월)4.3
- 의복(전월대비, %): ('23.8월)-2.1 → (9월)-4.8 → (10월)3.7
- 오락·취미·경기용품(전월대비, %): ('23.8월)0.4 → (9월)3.1 → (10월)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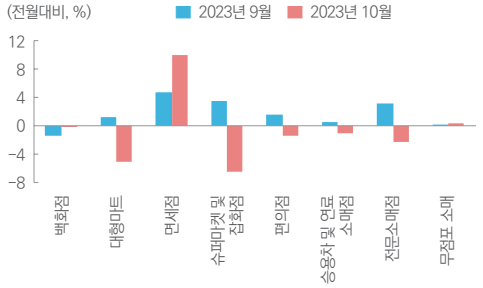
■ **비내구제는 명절효과 소멸로 음식료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3.1% 감소**

- 비내구재(전월대비, %): ('23.8월)0.3 → (9월)2.3 → (10월)-3.1
- 음식료품(전월대비, %): ('23.8월)-0.1 → (9월)4.2 → (10월)-6.6

■ **소매업태별로 대형마트(-4.9%), 슈퍼마켓 및 잡화점(-6.4%), 전문소매점(-2.3%)[1] 등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면세점에서의 판매는 여행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10.0%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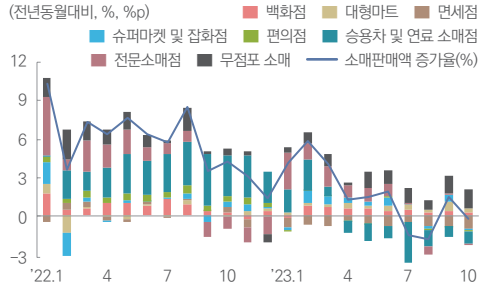
- 면세점(전월대비, %): ('23.8월)2.4 → (9월)4.8 → (10월)10.0
- 면세점(전년동월대비, %): ('23.8월)-30.0 → (9월)-27.2 → (10월)-31.1

[그림 3] 업태별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액증가율 기여도



주: 소매판매액증가율은 경상금액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고 각 업태별은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98.1)보다 낮은 97.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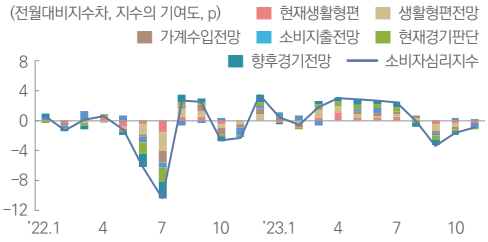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향후경기전망(72, +2p)은 개선되었으나 현재생활형편(87, -1p), 현재경기판단(62, -2p), 소비지출전망(111, -2p)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9p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 ('23.9월)99.7 → (10월)98.1 → (11월)97.2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6]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주: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지수차(p)이고 각 구성 항목은 지수의 기여도(p)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1)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2 투자

가. 설비투자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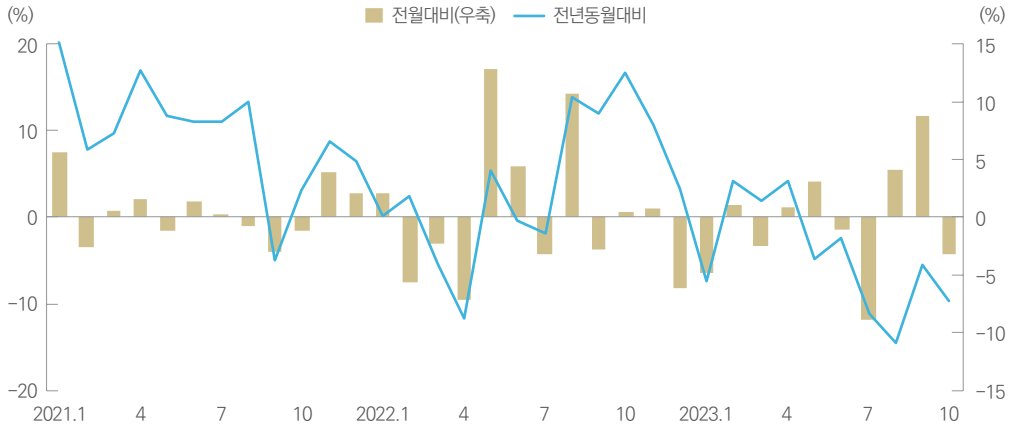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기계류(-4.1%)와 운송장비(-1.2%)에서 줄어들며 전월대비 3.2%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8월)4.1 → (9월)8.7 → (10월)-3.2
- 기계류(전월대비, %): ('23.8월)1.0 → (9월)7.2 → (10월)-4.1
- 운송장비(전월대비, %): ('23.8월)14.1 → (9월)13.0 → (10월)-1.2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11.7%)와 운송장비(-4.3%)에서 줄어들며 9.7% 감소**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3.8월)-14.6 → (9월)-5.6 → (10월)-9.7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3.8월)-17.1 → (9월)-7.0 → (10월)-11.7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3.8월)-6.4 → (9월)-1.5 → (10월)-4.3

[그림 7]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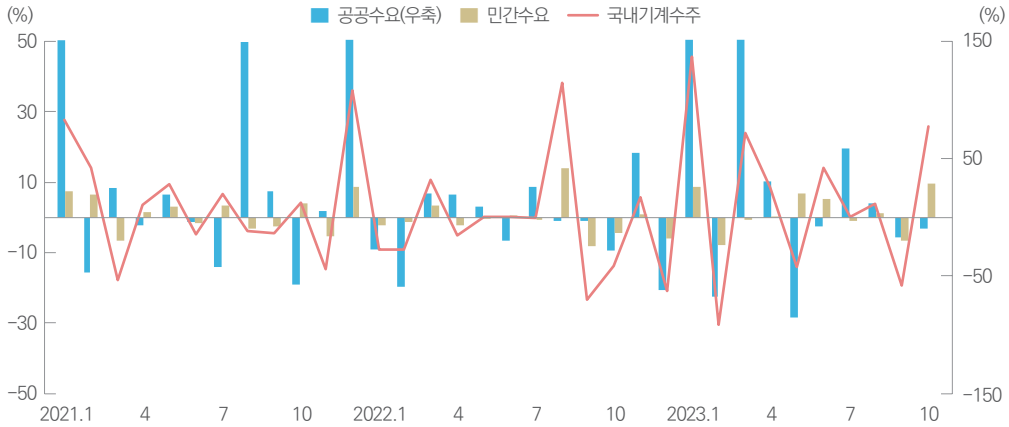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0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증가, 「기계류 내수출하」와 「기계류 수입액」은 감소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9.6%)에서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29.1%)에서 증가하며 전월대비 25.9% 증가**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3.8월)3.8 → (9월)-19.4 → (10월)25.9
• 공공부문(전월대비, %): ('23.8월)11.9 → (9월)-17.2 → (10월)-9.6
• 민간부문(전월대비, %): ('23.8월)3.2 → (9월)-19.6 → (10월)29.1

[그림 8]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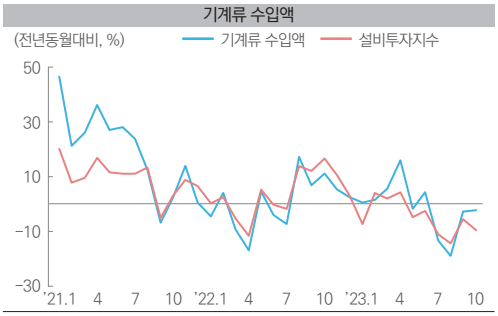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5.1%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3.8월)5.6 → (9월)9.7 → (10월)-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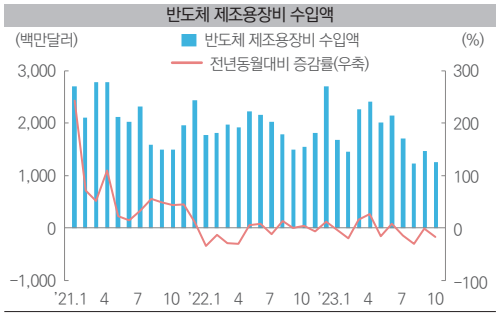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18.3%), 자동차(-10.4%)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3.8월)-19.1 → (9월)-2.9 → (10월)-2.4

[그림 9]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10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 공사가 줄었으나 건축 공사가 늘어나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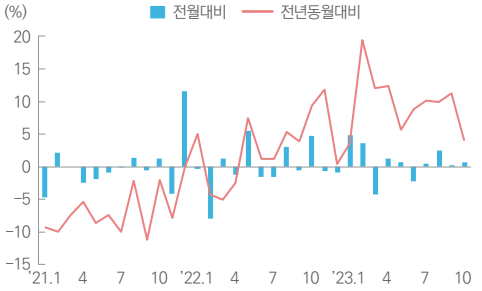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0%) 공사가 감소하였으나 건축(1.3%) 공사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7% 증가**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8월)2.5 → (9월)0.2 → (10월)0.7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3.8월)0.8 → (9월)-3.9 → (10월)1.3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3.8월)8.8 → (9월)14.1 → (10월)-1.0

■ **전년동월대비로는 토목(11.2%) 공사와 건축(2.0%) 공사가 모두 늘어 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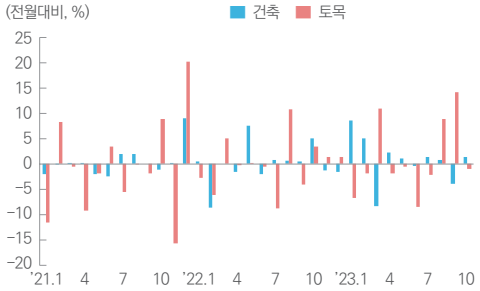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3.8월)10.0 → (9월)11.3 → (10월)4.1

[그림 10]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1]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0월 「건설기성(경상)[2)]」은 건축 공사와 토목 공사가 모두 증가

■ **건설기성(경상)은 건축과 토목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 건설(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2.9 → (9월)14.5 → (10월)6.8

■ **건축부문(경상)은 비주거용 건축 공사(-0.4%)가 감소하였으나 주거용 건축(8.0%) 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4.8%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6.3 → (9월)12.4 → (10월)4.8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6.0 → (9월) 7.3 → (10월)8.0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6.6 → (9월)21.2 → (10월)-0.4

2) 건설기성액의 세부항목에 대한 불변금액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 공정에 대한 동향은 경상금액을 기준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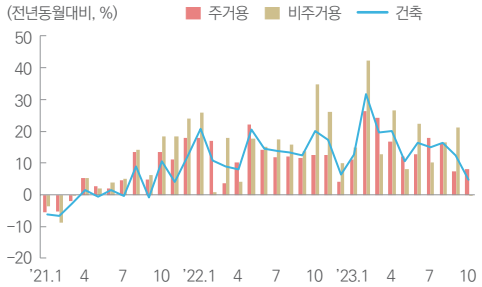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전기기계(-32.3%)가 감소하였으나 플랜트(18.5%) 및 일반토목(16.1%) 공사실적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2.0 → (9월)21.4 → (10월)13.8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11.4 → (9월)44.4 → (10월)16.1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53.5 → (9월)-43.1 → (10월)-32.3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23.8월)10.2 → (9월)15.4 → (10월)18.5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살펴보면 민간기관(9.2%)이 증가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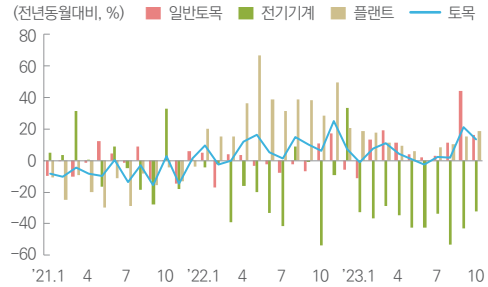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3.6 → (9월)22.8 → (10월)-8.1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3.8월)14.9 → (9월)13.0 → (10월)9.2

[그림 12]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3]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10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수주(-23.4%)는 감소하였으나, 건축수주(48.6%)는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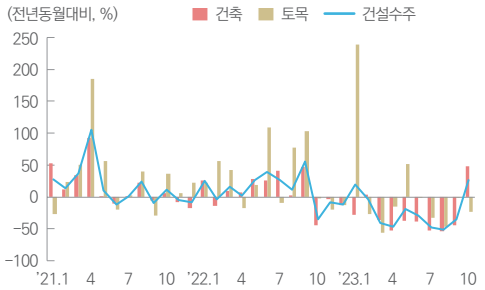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 건축 수주는 사무실 및 점포(388.8%), 주택(38.0%) 수주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48.6% 증가
- 토목 수주는 항만 및 공항(-97.5%), 기계설치(-46.0%)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23.4% 감소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3.8월)-52.2 → (9월)-35.1 → (10월)26.6

■ **발주처별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수주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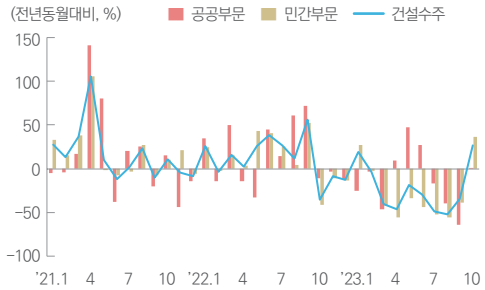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수주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3%, 36.2% 증가

[그림 14]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5]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11월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558.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4.4 → (10월)5.1 → (11월)7.8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3.9월)26.0 → (10월)26.2 → (11월)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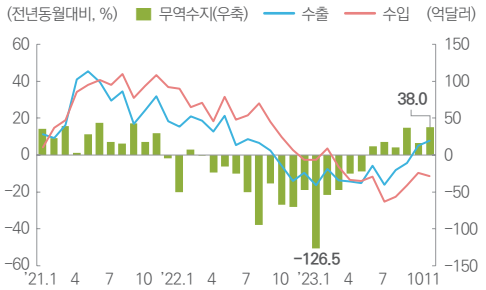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한 52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감소**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9월)-16.5 → (10월)-9.7 → (11월)-11.6

■ **무역수지는 38.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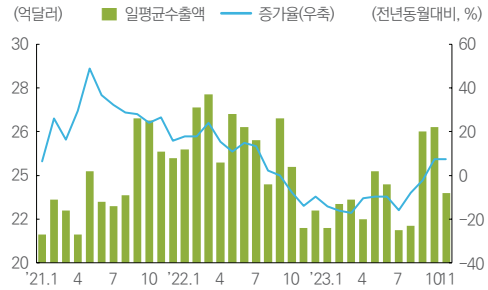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달러): ('23.9월)37.0 → (10월)16.3 → (11월)38.0

[그림 16]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7]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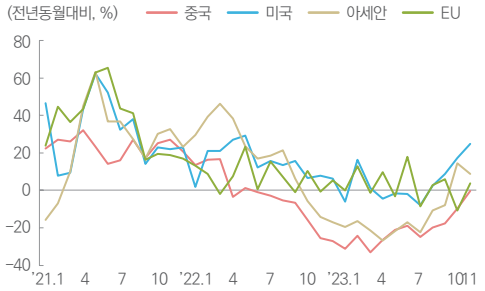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

■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둔화된 가운데, 미국, 일본,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도 확대**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17.6 → (10월)-9.6 → (11월)-0.2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8.9 → (10월)17.3 → (11월)24.7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2.5 → (10월)10.3 → (11월)11.5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8.0 → (10월)14.3 → (11월)8.7
- 대EU(27)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6.0 → (10월)-10.7 → (11월)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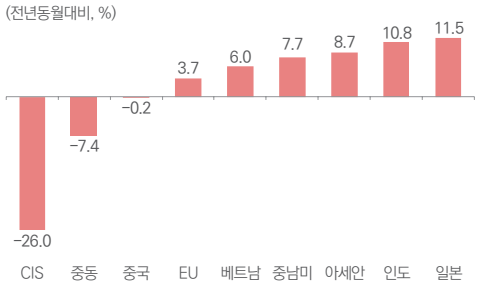
- 대중동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2.8 → (10월)9.0 → (11월)-7.4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18.0 → (10월)8.3 → (11월)7.7
- 대베트남 수출(전년동월대비, %): ('23.9월)3.3 → (10월)-2.5 → (11월)6.0

[그림 18]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9] 11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10월 「경상수지」는 68.0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 기록

■ **경상수지는 68.0억달러로 전년동월 16.3억달러보다 51.7억달러 증가**

- 경상수지(억달러): ('23.8월)49.8 → (9월)54.2 → (10월)68.0

■ **상품수지는 53.5억달러로 전년동월 -9.5억달러보다 63.0억달러 증가**

- 상품수지(억달러): ('23.8월)52.1 → (9월)74.2 → (10월)53.5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3.8월)38.4 → (9월)63.3 → (10월)37.7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3.8월)13.6 → (9월)11.5 → (10월)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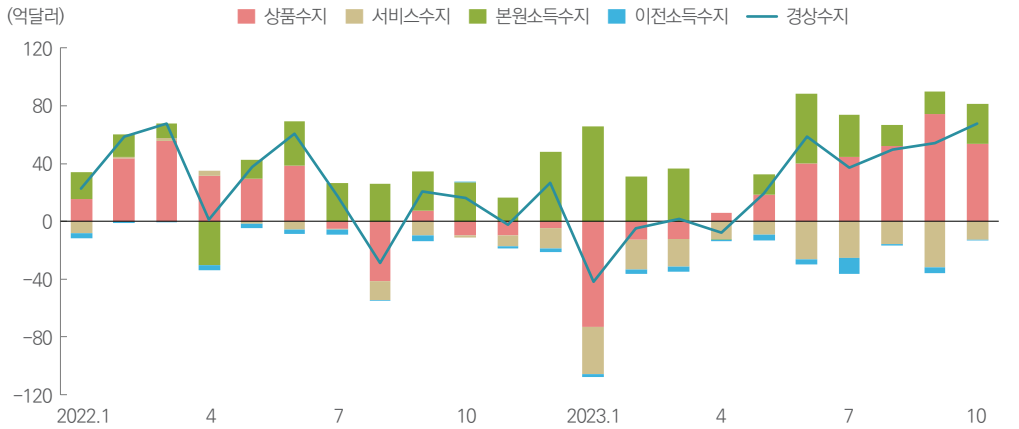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12.5억달러 적자 기록**

- 서비스수지(억달러): ('23.8월)-15.7 → (9월)-31.9 → (10월)-12.5
- 운송수지(억달러): ('23.8월)-0.2 → (9월)-0.7 → (10월)-3.0
- 여행수지(억달러): ('23.8월)-11.4 → (9월)-9.7 → (10월)-6.4

■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27.7억달러 흑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3.8월)14.6 → (9월)15.7 → (10월)27.7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3.8월)15.6 → (9월)17.2 → (10월)28.3

[그림 20]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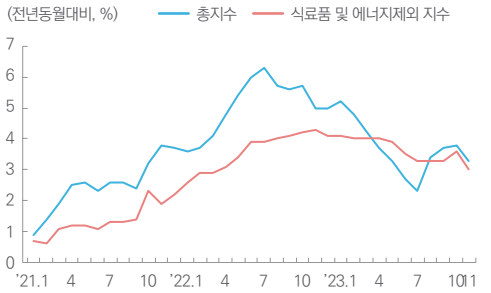
4 소비자물가

1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3.8%), 서비스(3.0%)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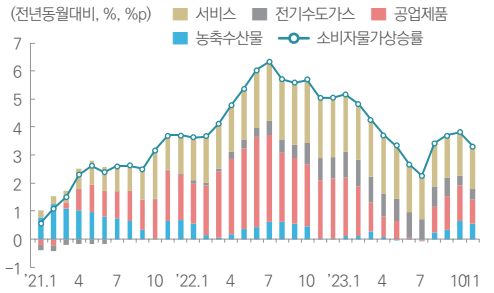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3.8 → (11월)3.3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6 → (10월)4.7 → (11월)3.8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2.9 → (10월)3.0 → (11월)3.0
- 근원물가상승률[3](전년동월대비, %): ('23.9월)3.3 → (10월)3.6 → (11월)3.0

[그림 21]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2]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13.6%) 품목을 중심으로 6.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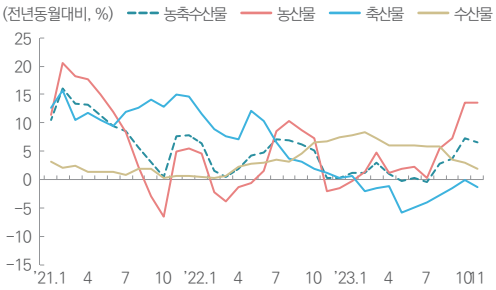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7 → (10월)7.3 → (11월)6.6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7.2 → (10월)13.5 → (11월)13.6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1.6 → (10월)-0.1 → (11월)-1.3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5 → (10월)3.0 → (11월)1.8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5.1%) 가격 하락에도 가공식품(5.1%)의 높은 상승세 유지로 2.4% 상승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3.4 → (10월)3.5 → (11월)2.4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5.8 → (10월)4.9 → (11월)5.1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9 → (10월)-1.3 → (11월)-5.1
-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3.9월)91.3 → (10월)88.1 → (11월)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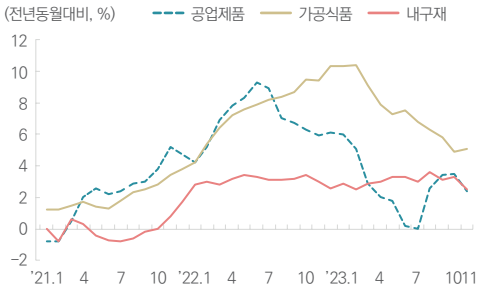
3) 근원물가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그림 23]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4]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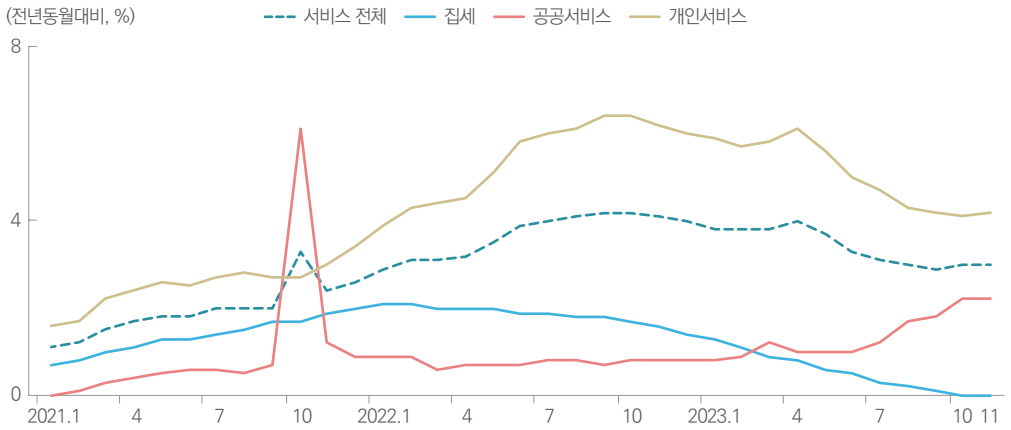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0%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2.9 → (10월)3.0 → (11월)3.0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0.1 → (10월)0.0 → (11월)0.0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1.8 → (10월)2.2 → (11월)2.2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3.9월)4.2 → (10월)4.1 → (11월)4.2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생산·고용·인구

10월 「생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 1.6%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2 → (9월)2.7 → (10월)1.0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1.9 → (9월)1.0 → (10월)-1.6

■ **제조업 생산은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조선, 섬유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 등의 생산은 늘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0.8 → (9월)2.9 → (10월)1.2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6 → (9월)2.1 → (10월)0.8

11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 고정가격이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고, 완성차도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요 11대 산업 중 8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8.1%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9.5 → (9월)-4.1 → (10월)7.8 → (11월)8.1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8월)2.8 → (9월)6.3 → (10월)2.58 → (11월)0.5

■ **품목별로는 철강(-11.1%), 석유(-4.4%) 등의 수출은 줄었으나, 조선(38.5%), 자동차(17.0%), 일반기계(14.1%), 반도체(12.9%), 가전(14.2%), 화학(5.9%) 등은 증가**

10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2 → (9월)-0.2 → (10월)-0.1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0 → (9월)0.1 → (10월)0.3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락세 멈춤

■ **11월 취업자 수는 2,869.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7만명 증가하여 29개월째 증가세를 유지,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2.3%를 기록**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
-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15~29세 및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11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만4천명(-0.22%) 감소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47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9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세 지속**

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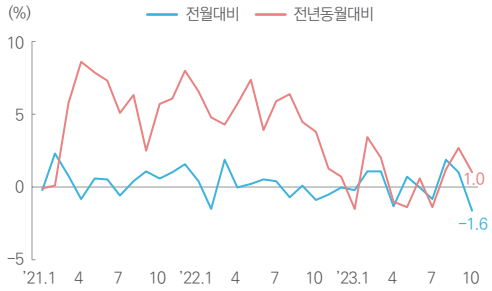
10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생산은 늘었으나 공공행정은 줄어 1.0%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은 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은 줄어 1.6%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2 → (9월)2.7 → (10월)1.0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1.9 → (9월)1.0 → (10월)-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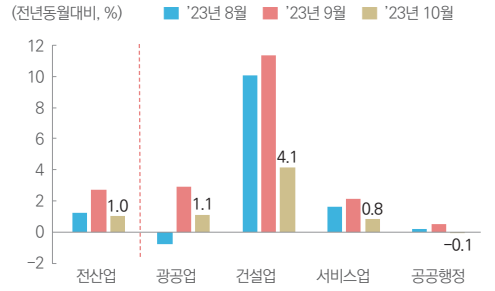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공공행정(-0.1%)만 생산이 감소하였고 광공업(1.1%), 건설업(4.1%), 서비스업(0.8%)은 증가, 전월대비로는 건설업(0.7%)만 생산이 증가하였고, 광공업(-3.5%), 서비스업(-0.9%), 공공행정(-1.4%) 등은 감소**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10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22.2%), 일반기계(-13.3%), 조선(-4.1%), 섬유(-5.4%)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14.7%), 자동차(2.8%), 철강(26.3%), 석유(5.5%) 등의 생산은 늘어 1.2%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0.8 → (9월)2.9 → (10월)1.2

■ **전월대비: 석유(5.5%), 철강(4.9%), 자동차(3.2%)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가전(-12.7%), 반도체(-11.4%), 일반기계(-8.3%), 조선(-6.7%), 화학(-1.2%) 등의 생산이 줄어 3.5%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5.3 → (9월)1.9 → (10월)-3.5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6.6	106.5	106.4	105.7	109.6	107.7	-3.5
제조업	1.6	0.0	-2.8	-0.8	2.9	1.2	
반도체	-3.5	-6.6	-11.1	8.4	23.6	14.7	-11.4
자동차	21.3	28.3	20.3	8.2	0.0	2.8	3.2
화학	-16.8	-20.1	-16.5	-2.6	0.8	-0.1	-1.2
일반기계	12.0	11.7	6.0	-13.8	-9.7	-13.3	-8.3
철강	-7.6	-26.8	-25.1	-0.5	21.1	26.3	4.9
석유	3.7	1.7	-0.4	-14.8	-0.4	5.5	5.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10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숙박·음식점업(-5.2%), 도소매업(-3.7%), 부동산업(-1.3%) 등은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업(6.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 금융·보험업(1.5%), 교육서비스업(1.0%) 등이 늘어 0.8%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1.6 → (9월)2.1 → (10월)0.8
- **전월대비: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2%), 정보통신업(1.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4%) 등은 늘었으나, 도소매업(-3.3%), 부동산업(-3.0%), 숙박 · 음식점업(-2.3%), 운수창고업(-1.4%), 금융·보험업(-1.2%) 등은 줄어 0.9%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0.2 → (9월)0.5 → (10월)-0.9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2			2023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서비스업(원지수)	112.1	113.2	113.5	113.9	115.6	114.4	-0.9
서비스업	9.8	7.9	7.1	1.6	2.1	0.8	
도매 및 소매	6.6	2.7	2.1	-3.5	-0.3	-3.7	-3.3
숙박 및 음식점	26.6	16.8	12.7	-5.0	-1.3	-5.2	-2.3
금융 및 보험	8.4	11.2	11.4	5.4	1.7	1.5	-1.2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11월 중 주요 11대 산업[4]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철강(-11.1%), 석유(-4.4%), 컴퓨터·주변장치(-5.5%) 등의 수출은 줄었으나, 조선(38.5%), 자동차(17.0%), 일반기계(14.1%), 반도체(12.9%), 가전(14.2%), 무선통신기기(8.4%), 화학(5.9%) 등의 수출이 늘어 8.1% 증가**

- 11대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9.5 → (9월)-4.1 → (10월)7.8 → (11월)8.1
- 주요 11대 산업 중 8개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인 109억 달러를 기록

■ **전월대비: 조선(-45.3%), 석유(-12.6%), 컴퓨터·주변장치(-7.6%) 등은 수출이 줄었으나, 일반기계(14.1%), 자동차(10.5%), 반도체(6.5%), 화학(4.7%), 철강(0.3%) 등의 수출이 늘어 0.5% 증가**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3.8월)2.8 → (9월)6.3 → (10월)2.5 → (11월)0.5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2				2023					
	8월	9월	10월	11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11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5.0	-0.3	-9.2	-16.4	-9.5	-4.1	7.8	2.5	8.1	0.5
반도체	-7.8	-5.6	-17.4	-29.9	-20.6	-13.6	-3.1	-10.0	12.9	6.5
자동차	28.3	25.5	20.3	21.3	21.8	5.6	13.4	6.8	17.0	10.5
화학	-11.5	-15.2	-25.4	-26.2	-11.4	-5.1	-3.5	-6.5	5.9	4.7
일반기계	1.6	-1.8	-3.5	-1.9	7.6	9.8	10.5	-1.6	14.1	14.1
철강	2.4	-21.2	-20.8	-10.6	-11.3	7.3	-0.7	-8.3	-11.1	0.3
조선	-26.9	14.1	-8.8	-68.2	35.1	14.4	101.4	109.5	38.5	-45.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IT 업황(PC·모바일·서버) 내 재고조정으로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 고정가격이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반도체 수요가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하며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2.11월)84.3(-29.9%) → ('23.11월)95.2(12.9%)
-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22.11월)38.4(-49.7%) → ('23.11월)52.4(36.4%)
- D램 고정가(달러): ('23.9월)1.30 → (10월)1.50 → (11월)1.55

4)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 **자동차는 북미·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신차(코나,아이오닉6,EV9) 출시 효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내 자동차 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도 증가하면서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7.0%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72.3(21.3%) → ('23.11)84.6(17.0%)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53.7(30.5%) → ('23.11)65.3(21.5%)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18.6(0.8%) → ('23.11)19.3(3.9%)
- 역대 11월 완성차 수출액(억 달러): (1위)65.3('23년) → (2위)53.7('22년) → (3위)45.6('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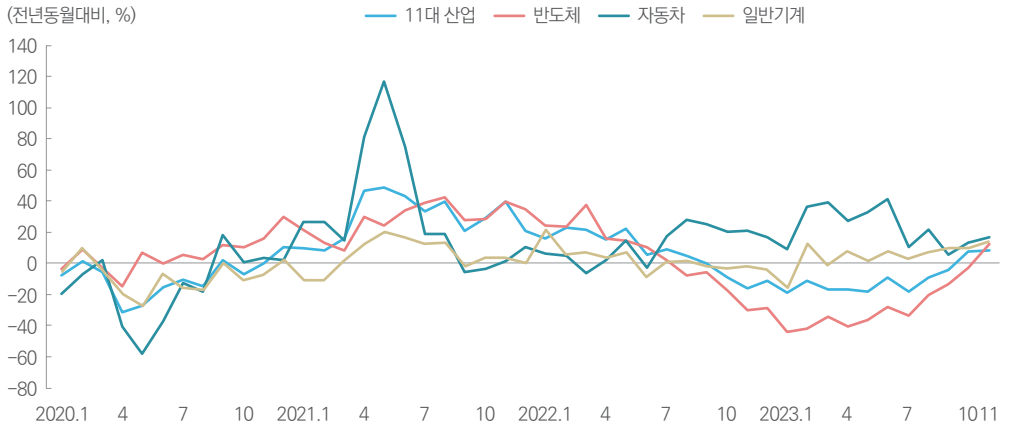
■ **일반기계는 중국·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신규 주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동·중남미 등 전략시장 내 산업기계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43.2(-1.9%) → ('23.11)49.3(14.1%)

■ **화학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 미국의 전방산업 소비수요 증가와 인도의 건설·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며 1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증감률: ('22.11)1,264(-14.1%) → ('23.11)1,205^{e}(-4.7%)
- 화학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2.11)35.7(-26.2%) → ('23.11)37.8(5.9%)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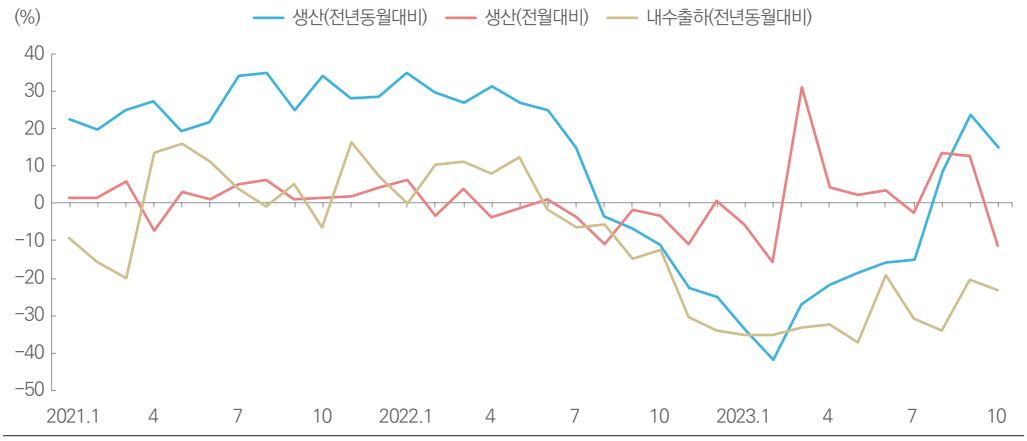
나. 제조업 생산

반도체: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및 전월대비 감소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7% 증가, 전월대비로는 11.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8.4 → (9월)23.6 → (10월)14.7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13.5 → (9월)12.8 → (10월)-11.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33.8 → (9월)-20.3 → (10월)-23.1

[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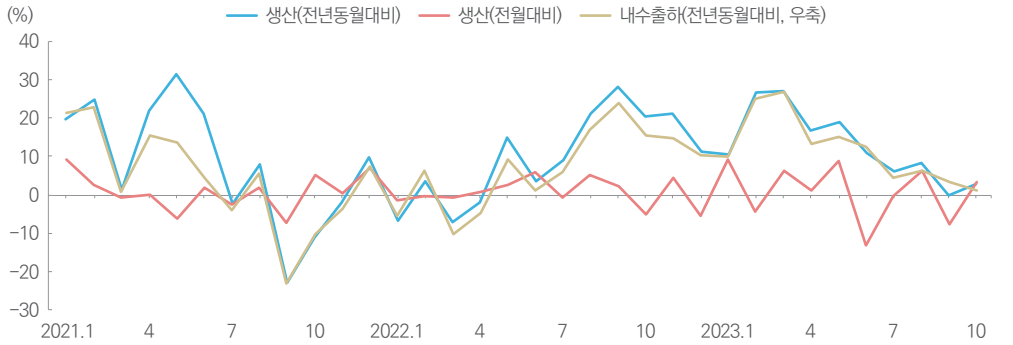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동차: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로는 3.2%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8.2 → (9월)0.0 → (10월)2.8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6.1 → (9월)-7.6 → (10월)3.2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6.2 → (9월)3.2 → (10월)1.1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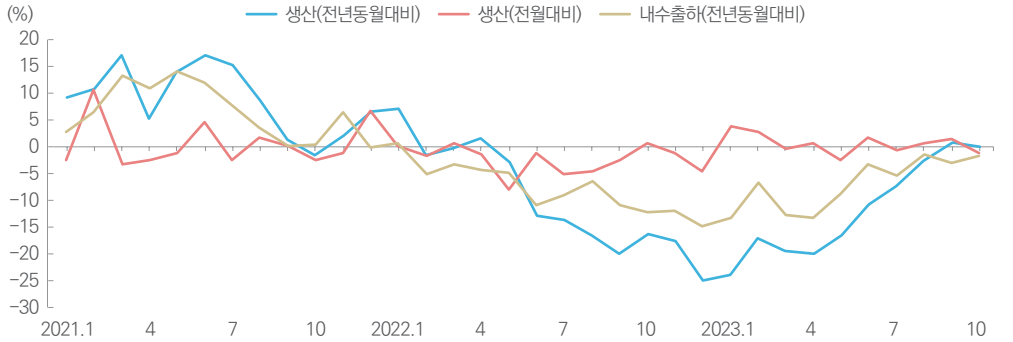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화학 산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10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34.1%)과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17.2%)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화학섬유 제조업의 경우 폴리아미드 섬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의 경우 국내 일부 사업체의 정기 시설보수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 중단에 기인
- 전월대비로는 1.2% 감소하였는데, 주요 화학섬유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과 기초화학 제품의 중국 내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에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2.6 → (9월) 0.8 → (10월) -0.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0.5 → (9월) 1.3 → (10월) -1.2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1.4 → (9월) -3.0 → (10월) -1.8

[그림 6] 화학산업 생산·내수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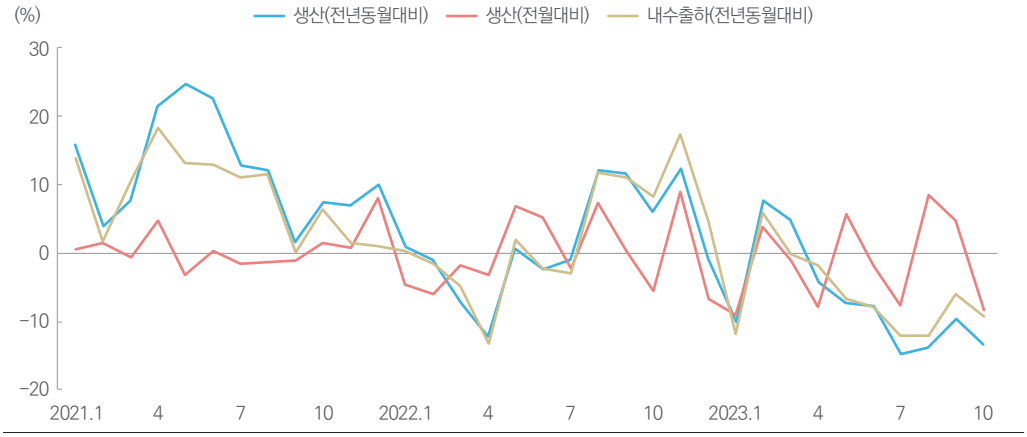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일반기계: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10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3%, 전월대비로는 8.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13.8 → (9월)-9.7 → (10월)-13.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8.4 → (9월)4.8 → (10월)-8.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12.0 → (9월)-6.0 → (10월)-9.2

[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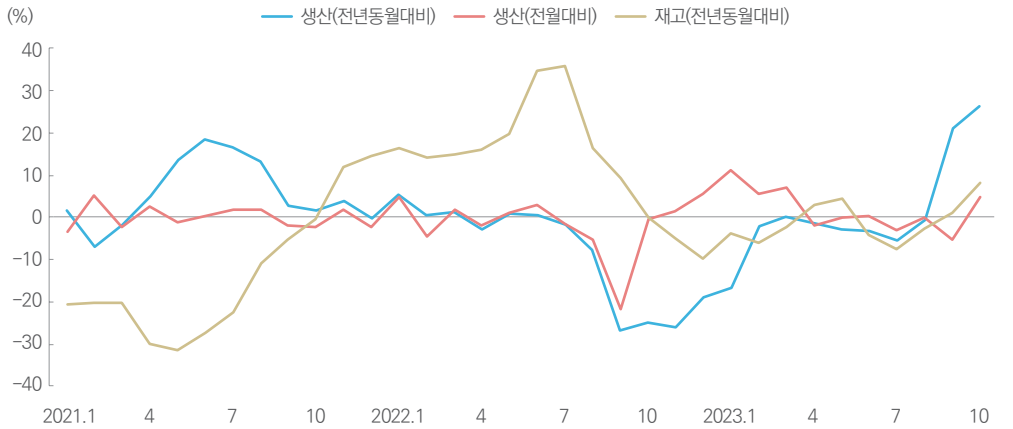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철강: 10월「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6.3%, 전월대비로는 4.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0.5 → (9월)21.1 → (10월)26.3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0.2 → (9월)-5.2 → (10월)4.9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2.6 → (9월)1.1 → (10월)8.0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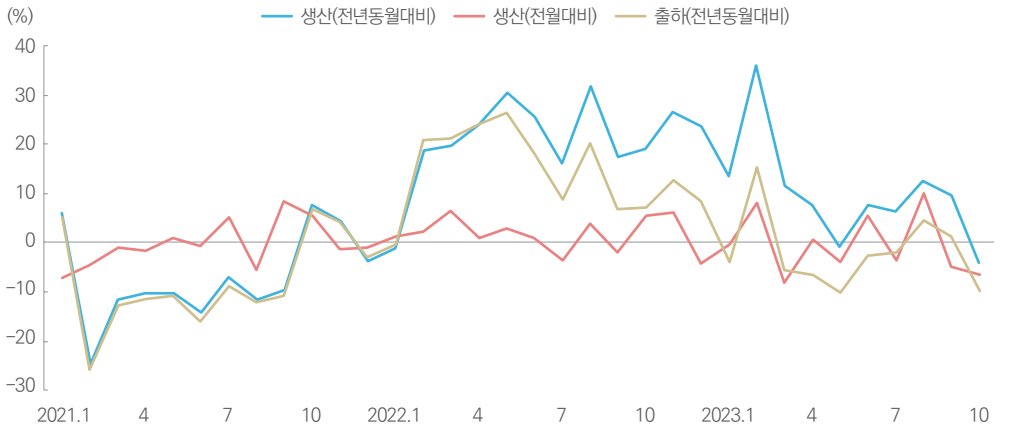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선: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4.1%, 6.7%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12.5 → (9월)9.7 → (10월)-4.1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3.8월)10.0 → (9월)-5.0 → (10월)-6.7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3.8월)4.6 → (9월)1.2 → (10월)-9.7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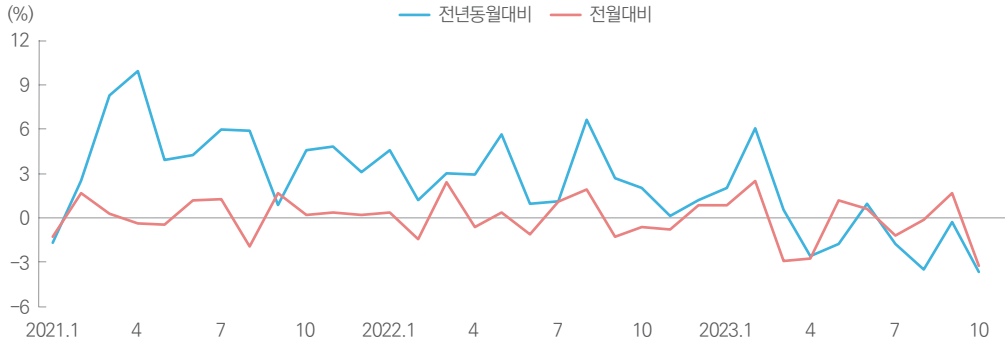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과 도매업(-3.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경우 전년에 반도체 수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상승했던 기저효과로 감소하였고,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의 경우 정밀기계 도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17.3% 감소한 데 기인
- 전월대비로는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9.2%), 생활용품 도매업(-4.4%),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8.1%),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6.9%) 등을 중심으로 3.3%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3.5 → (9월) -0.3 → (10월) -3.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0.1 → (9월) 1.7 → (10월) -3.3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금융 및 보험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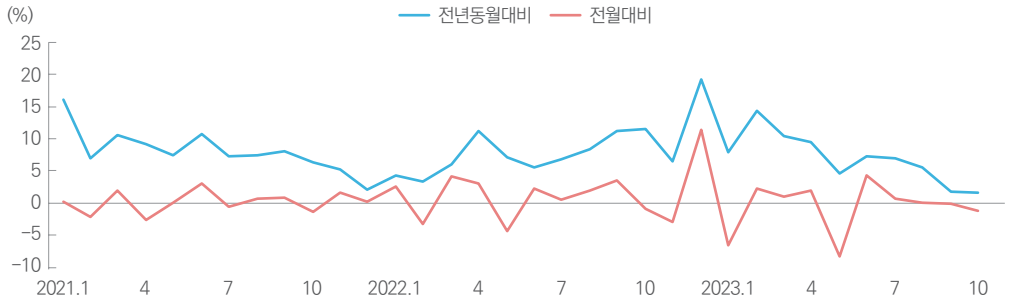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과 금융업(5.0%)을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5%로 증가**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주식거래량이 증가하면서[5] 금융업의 경우 대출 잔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데 기인[6]

5) 주식거래대금(전년동월대비 %): ('23.8월) 505조원(60.9%) → (9월) 363조원(30.5%) → (10월) 284조원(16.1%)
6)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23.8월) 6.9 → (9월) 4.8 → (10월) 6.8, 10월말 잔액(1,086.6조원)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23.8월) 8.2 → (9월) 11.3 → (10월) 8.1, 8월말 잔액(1,246.4조원)

- 전월대비로는 1.2% 감소하였는데, 카드론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8.2% 감소한 데 주로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5.4 → (9월) 1.7 → (10월) 1.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0.1 → (9월) -0.1 → (10월) -1.2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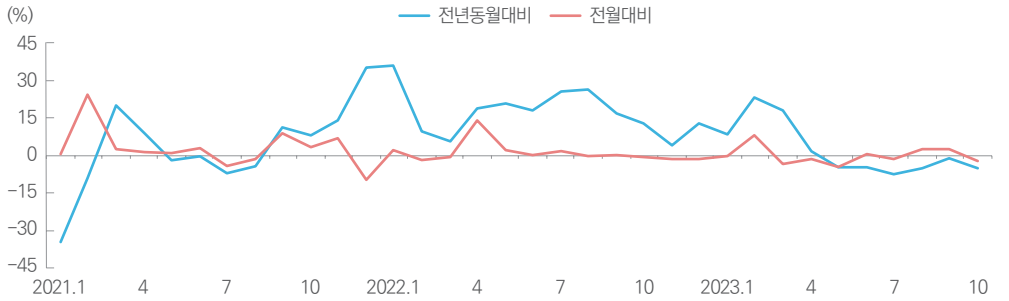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숙박 및 음식업: 10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2022년 6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사적 모임이 증가했던 기저효과,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가[7] 와 물가상승[8]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 전월대비로 2.3% 감소하였는데, 이는 추석연휴 동안 증가했던 수요의 감소와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가에 주로 기인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3.8월) -5.0 → (9월) -1.3 → (10월) -5.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3.8월) 2.6 → (9월) 2.6 → (10월) -2.3

[그림 12]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7) [BOX 1]을 참조
8) 소비자물가 상승률(%): ('23.8월) 3.4 → (9월) 3.7 → (10월)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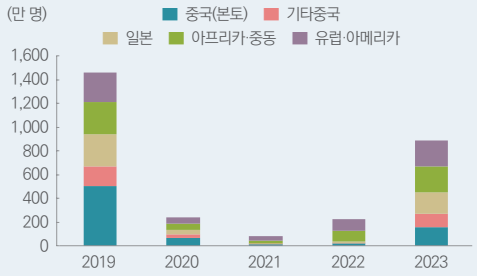
[BOX 1]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현황

■ 방한 외국관광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의 약 60% 수준

• 2023년 1~10월 누계 방한 외국관광객은 888만명으로, 코로나 펜더믹 이전인 2019년 1~10월 누계 1,459만명 대비 39.1% 감소

- 중국 본토 방한관광객은 2023년 1~10월 기준 154만명으로, 2019년 1~10월 대비 69.2%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 중국의 해외 단체관광 해제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방한 외국관광객수 추이]



주: 1~10월 누계 기준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단위: 만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중국(본토)	501	67	15	18	154	-69.2
기타중국	167	26	1	5	114	-32.0
일본	276	43	1	15	184	-33.2
아프리카·중동	268	53	28	91	214	-20.1
유럽·아메리카	248	51	34	92	222	-10.4
합계	1,459	240	78	220	888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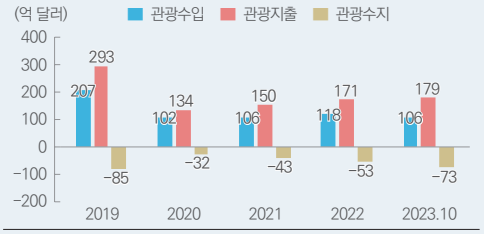
주: 2019년 대비 2023년 증감률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 반면, 내국인 해외관광객이 다소 빠르게 회복하면서 관광수지 적자폭은 확대 중

• 관광수지는 2020년 32억달러 적자, 2023년 10월 누계 기준 73억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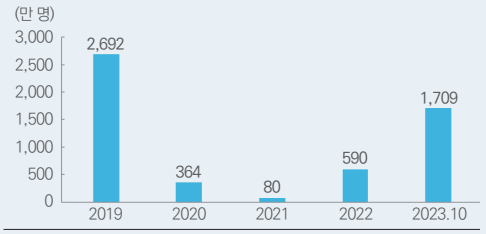
-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2023년 1~10월 누계 1,709만명으로, 2019년 1~10월 누계 2,277만명의 75.0%에 해당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지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내국인 해외관광객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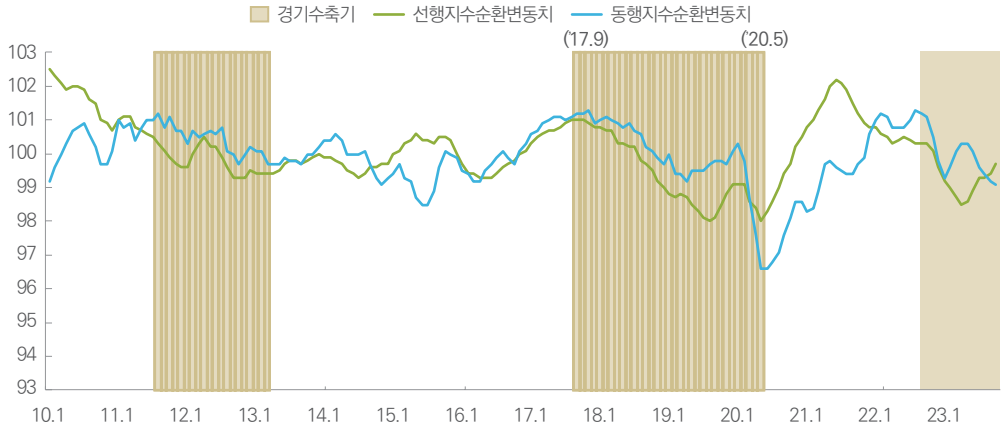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

라. 경기종합지수

10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이어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9.1)는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전월에 이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2 → (9월)-0.2 → (10월)-0.1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7)는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 확대**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3.8월)0.0 → (9월)0.1 → (10월)0.3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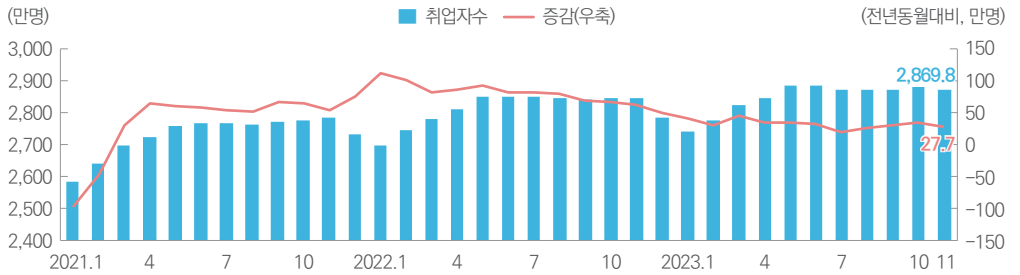
2 고용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7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동일

■ **11월 취업자 수는 2,869.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7만명 증가하여 2021년 3월 이후 29개월째 증가세 유지**

-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0.9 → (10월)34.6 → (11월)27.7
- 계절조정 취업자 수(전월대비, 만명): ('23.9월)2.8 → (10월)4.2 → (11월)-7.9

[그림 14]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4.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3.9월)64.6 → (10월)64.7 → (11월)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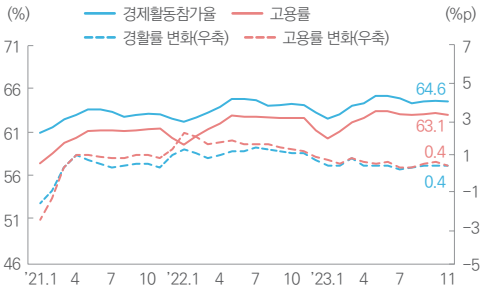
■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률(%): ('23.9월)63.2 → (10월)63.3 → (11월)63.1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2.3%로 전년동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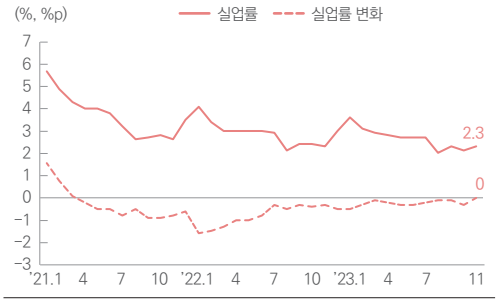
- 실업률(%): ('23.9월)2.3 → (10월)2.1 → (11월)2.3

[그림 15]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6]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감소세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명 감소하였으나, 감소세는 축소**

• 제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7.2 → (10월)-7.7 → (11월)-1.1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5.3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축소**

• 서비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3.4 → (10월)38.1 → (11월)25.3

•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되는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등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은 취업자가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3.2만명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

•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6 → (10월)1.4 → (11월)3.2

11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15~29세 및 40대는 감소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9.1만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주도**

• 고령층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5.4 → (10월)33.6 → (11월)29.1

■ **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감소폭은 4개월 연속 축소**

• 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8.9 → (10월)-8.2 → (11월)-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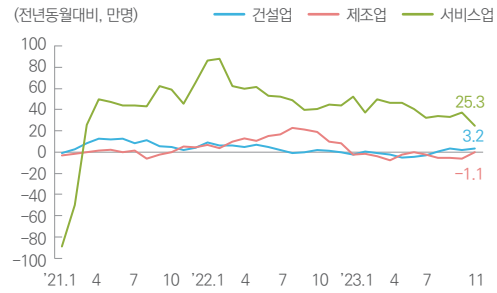
■ **30대와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

• 3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5.6 → (10월)11.0 → (11월)8.0

• 4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5.8 → 10월)-6.9 → (11월)-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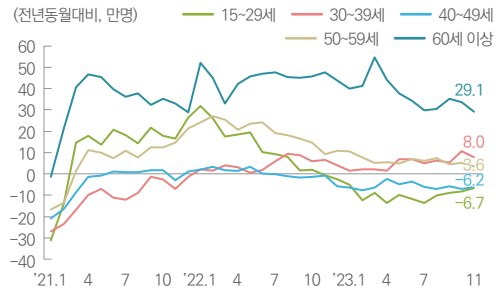
• 5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4.5 → (10월)5.1 → (11월)3.6

[그림 17]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8]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월 직업별 「취업자 수」[9]는 저숙련 직업 취업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2만명 증가하였으며 '21년 3월 이후 33개월째 증가세 유지**

• 고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6.6 → (10월)30.6 → (11월)28.2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2만명 증가하였으며 3개월째 증가세 유지**

• 중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4.3 → (10월)11.3 → (11월)8.2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4만명 감소하였으며 5개월째 감소세 유지**

• 저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10.0 → (10월)-10.3 → (11월)-10.4

11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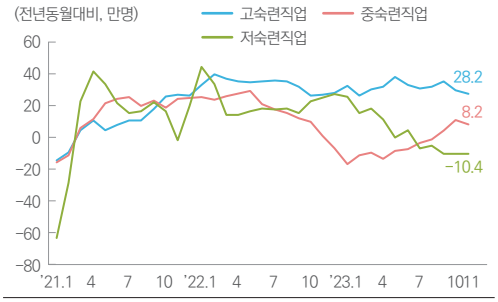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3.7만명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상용근로자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결과**

•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43.5 → (10월)44.0 → (11월)41.9
•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3.0 → (10월)6.8 → (11월)2.5
•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6.7 → (10월)-11.0 → (11월)-10.7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명 감소하였으며, 3개월째 감소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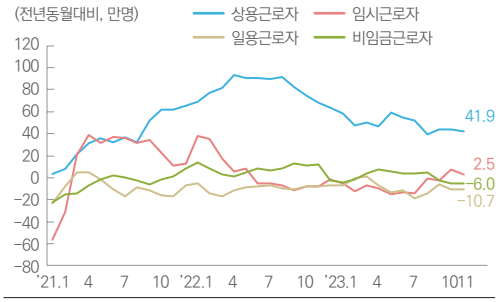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3.9월)-2.9 → (10월)-5.2 → (11월)-6.0

[그림 19]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 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성

11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종사자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유지**

•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3.9월)6.0(2.0) → (10월)6.1(2.0) → (11월)6.2(2.0)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소폭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3.9월)24.8(1.0) → (10월)28.5(1.1) → (11월)21.7(0.9)

10월 「빈 일자리 수」는 8,880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0개월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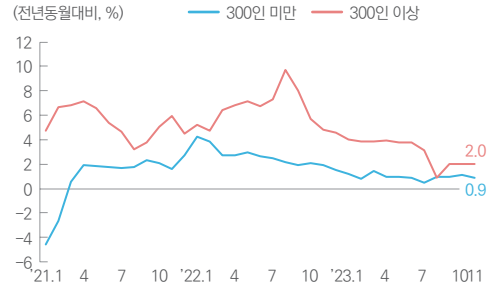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857개 증가하여 3개째 증가세 유지**

• 빈 일자리 수(300인 이상)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8월)0.8(10.1) → (9월)0.8(11.1) → (10월)0.9(12.3)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9,737개 감소하여 10개월째 감소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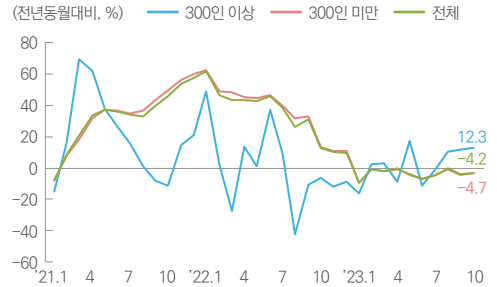
• 빈 일자리 수(300인 미만)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변화율,%)): ('23.8월)-4.0(-1.9) → (9월)-12.5(-5.7) → (10월)-9.7(-4.7)

[그림 21]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빈 일자리 수 변화율 추이



자료: 고용노동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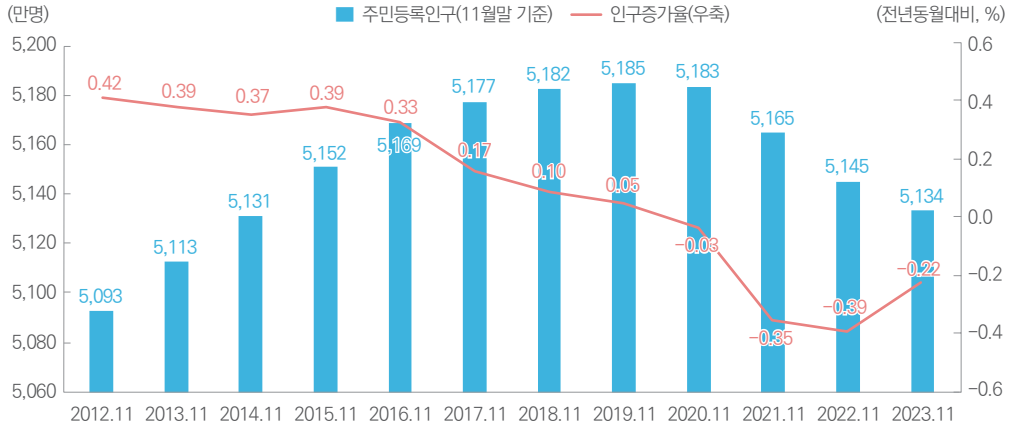
3 인구

11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0.22%)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주민등록인구는 5,13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2% 감소**

• 각 연도 11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0.35%, 2022년 -0.39%, 2023년 -0.22%로 감소 지속

[그림 23]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11월~2023.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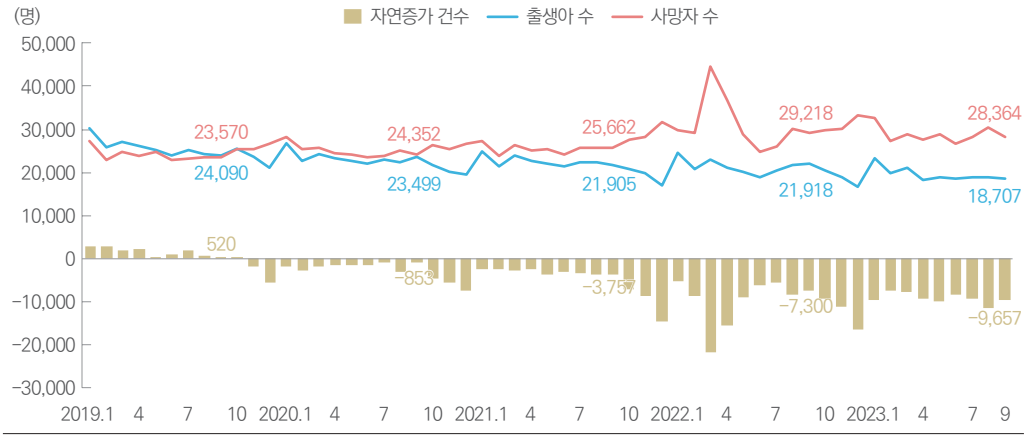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9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47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9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3,211명(14.7%) 감소한 1만 8,707명을 기록**

■ **9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54명(2.92%) 감소한 2만 8,364명을 기록**

[그림 24]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월~2023.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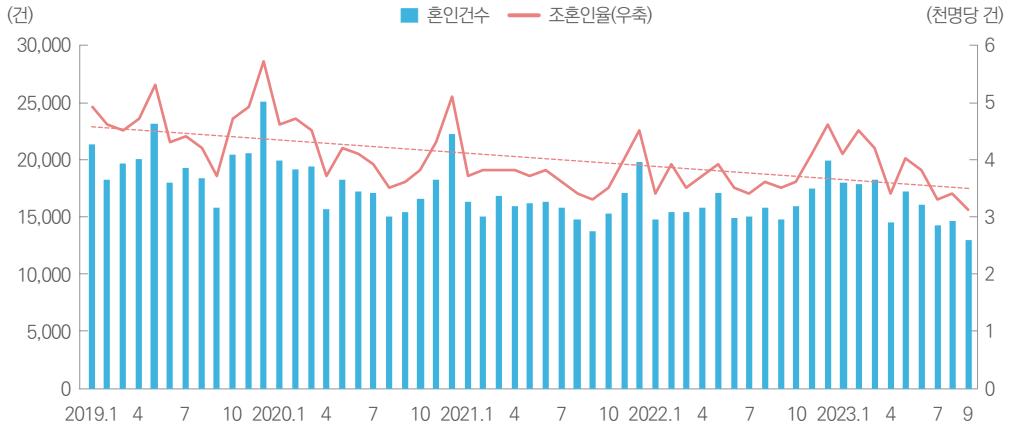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9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감소 추세 지속

■ **9월 혼인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807건(12.3%)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은 3.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4건 감소**

• 각 연도 9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3.7건, 2020년 3.6건, 2021년 3.3건. 2022년 3.5건

[그림 25]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월~2023.9월)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금융·자산·재정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국고채금리」와 「환율」이 모두 하락

- 1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하락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9월말)3.88 → (10월말)4.09 → (11월말)3.58
- 11월 원/달러 환율은 대외거래 여건 개선,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 (9월말)1,345 → (10월말)1,353 → (11월말)1,289

11월 중 「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 및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하락,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은 전월대비 모두 상승

- 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중국 경제 지표 약세, 재고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각각 8.7%, 10.8%, 0.4% 하락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1.6%, 0.9%, 2.7%, 3.7% 상승

2023년 11월의 「정산단가」는 전년동월대비 37.9% 하락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10.0원으로 전월대비로는 7.0% 하락하였으며, 최고치인 2022년 11월(177.1원)대비 37.9% 하락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73.7원으로 최고치인 2022년 8월(130.5원)대비 43.5% 하락하였고,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44.7원으로 최고치인 2022년 11월(270.4원)대비 46.5% 하락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지역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0.32% → 0.06%)과 지방(0.09% → 0.02%) 모두 상승폭 축소되면서 전국적으로 축소(0.20% → 0.04%)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수입은 492.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8.4%) 감소

- 자산시장 둔화, 영업이익 감소, 수입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14.6조원, 23.7조원, 5.4조원 감소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지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8조원(−13.4%) 감소

-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예산은 28.2조원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은 39.2조원 감소

1 국내 금융시장

가. 금리

1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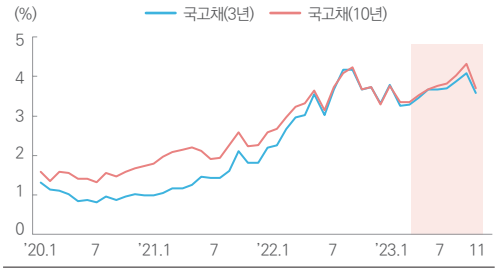
■ **11월 국고채금리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우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기대 등으로 하락**

- 11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58%로 전월말 대비 0.50%p 하락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는 3.70%로 전월말 대비 0.63%p 하락
- 한편 11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2023년 1월말 대비로는 각각 0.26%p, 0.40%p 높은 수준

■ **한편 11월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

- 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의 기조적 둔화 흐름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
-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2, 4, 5, 7, 8, 10,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

[그림 1]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2]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11월 「회사채 금리」는 하락한 반면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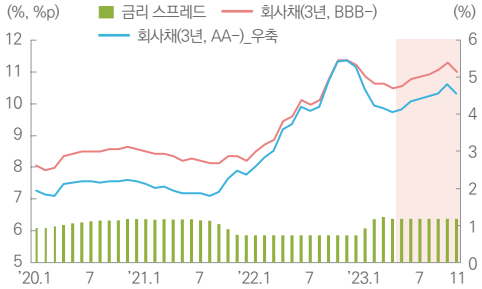
■ **11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통화정책 등과 관련된 대내외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하락**

- 11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0.24%p 하락한 4.58%,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전월말 대비 0.24%p 하락한 10.98%를 기록
- 회사채(3년, AA-)와 회사채(3년, BBB-) 금리의 하락은 2023년 4월 이후 처음

■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대출 금리 대비 크게 상승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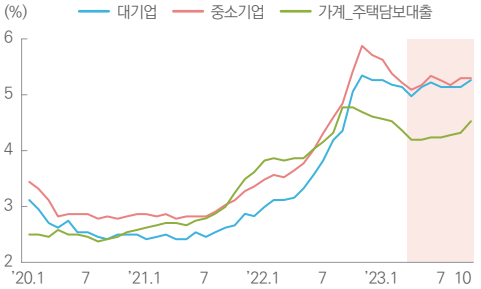
- 10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12%p 상승한 5.30%,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1%p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0.16%p에서 0.05%p로 축소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3년 6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10월 기준 전월 대비 0.21%p 상승한 4.56%를 기록

[그림 3]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4]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11월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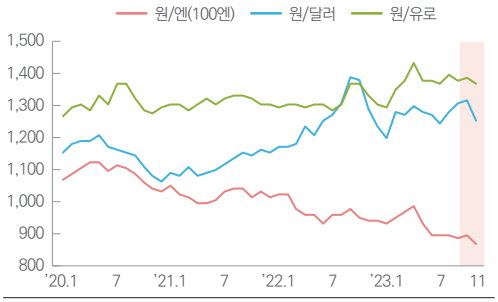
■ **11월 미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에 대한 대원화 환율은 대외불확실성 완화, 외국인 투자 유입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하락**

- 11월말 원/달러 환율은 1,289원으로 전월말 1,353원 대비 4.72% 하락
- 11월말 원/유로화, 원/엔화 환율은 1414월, 877원으로 전월말 대비 각각 1.51%, 3.28% 하락
- 한편 11월말 기준 원화 대비 달러화, 유로화, 엔화 환율은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1.71%, 4.66%, -7.96% 상승

■ **한편 11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대외거래 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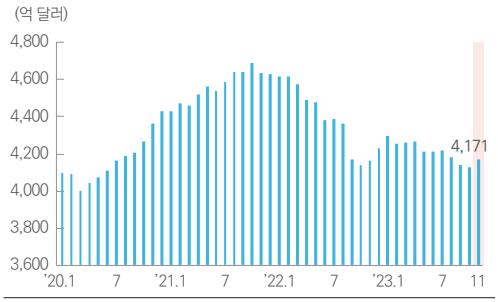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23년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11월 기준 전월대비 42억 달러 증가한 4,171억 달러 기록

[그림 5]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6]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다. 주가

11월 「국내 주가」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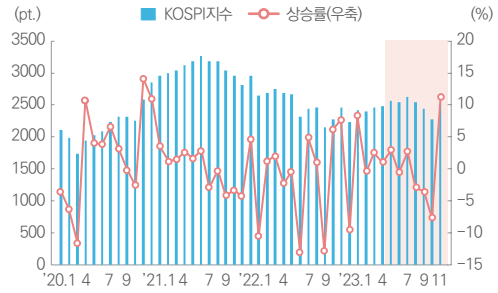
■ **11월 국내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 대내외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 11월말 국내 KOSPI지수는 전월말(2,278) 대비 11.30% 상승한 2,535를 기록
- 한편 11월말 KOSPI지수는 전년말(2,236) 대비로는 13.36% 상승

■ **외국인 투자자는 2023년 8~10월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도세를 나타냈으나 11월 순매수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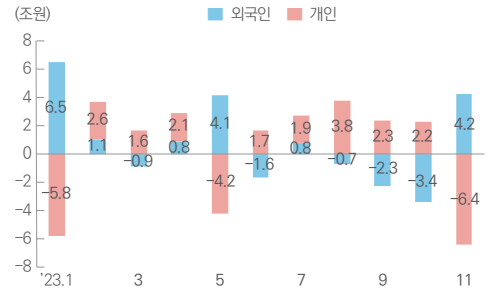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는 2023년 8~10월 6.4조원, 월평균 2.1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11월 4.2조원을 순매수
- 한편 개인 투자자는 2023년 8~10월 8.3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11월 6.4조원을 순매도

[그림 7]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그림 8]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11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원유 가격은 중국 경제 지표 약세,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의 하락 요인에 의해 배럴 당 81.4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9%, 전월대비 8.7% 하락**

• 원유 가격(달러/배럴): ('23.9월)92.2 → (10월)89.1 → (11월)81.4

11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톤당 126.8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2.9%, 전월대비 10.8% 하락**

• 석탄 가격(달러/톤): ('23.9월)162.5 → (10월)142.1 → (11월)1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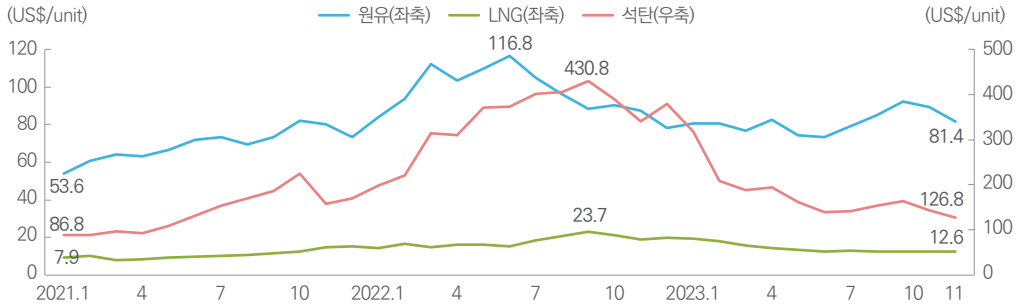
11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 증가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온난화 등으로 백만비티유(MMbtu)당 12.6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5.8%, 전월대비 0.4% 하락**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10]): ('23.9월)12.5 → (10월)12.6 → (11월)12.6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2.7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48.7%, 전월대비 9.4% 하락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14.5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59.5%, 전월대비 0.6% 하락

[그림 9]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원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Morningstar

10)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11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농산물 지수는 110.1로 대두유, 해바라기 유, 커피, 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0% 하락, 전월대비 1.6% 상승**

• 농산물 지수: ('23.9월)112.7 → (10월)108.4 → (11월)110.1

11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식품 지수는 123.7로 닭고기, 쇠고기, 양고기, 새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1% 하락, 전월대비 0.9% 상승**

• 식품 지수: ('23.9월)129.2 → (10월)122.6 → (11월)123.7

11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금속·광물 지수는 101.2로 철광석, 납, 구리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전월대비 2.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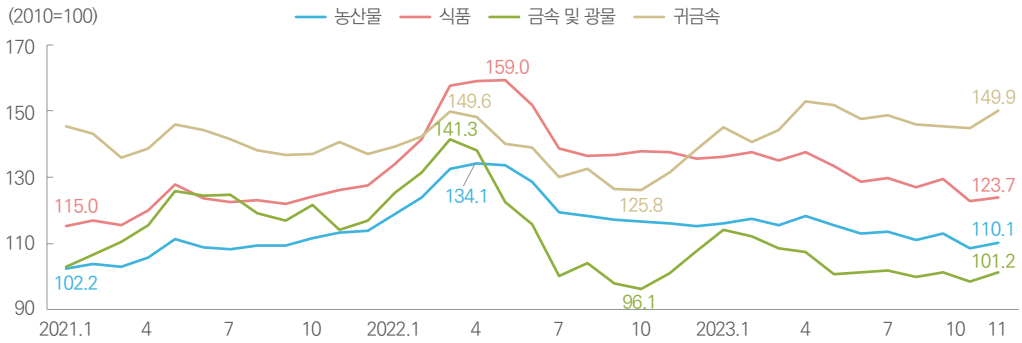
• 금속·광물 지수: ('23.9월)101.2 → (10월)98.5 → (11월)101.2

11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귀금속 지수는 149.9로 금과 은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2%, 전월대비 3.7% 상승**

• 귀금속 지수: ('23.9월)145.3 → (10월)144.6 → (11월)149.9

[그림 10]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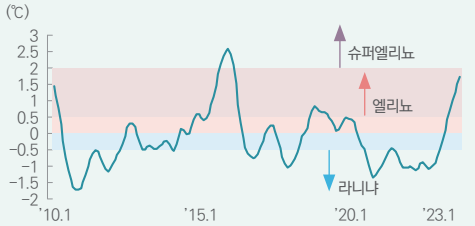
주: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데이터(pink sheet)는 2010년=100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을 나타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BOX 2] 기후변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 2023년 7월 이후 시작된 엘니뇨로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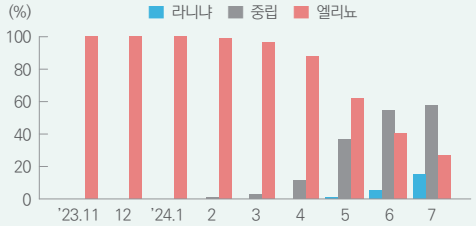
- 2023년 11월 기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슈퍼엘리뇨[11]가 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어 세계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회색코뿔소로[12] 작용할 우려 존재
  - 2015~2016년 엘니뇨 당시 세계 곡물 생산은 1.6% 감소, 사탕수수 원당 생산은 7.1% 감소
  -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액은 2023~2029년 기간에 3조 달러로 추정됨[13]
- 엘리뇨는 미국, 중남미를 고온다습화하고, 아시아와 남반구를 건조화하는 경향이 있어 곡물 및 소프트자산, 금속광물 시장에 영향을 미침
  - 미국과 중남미의 주 생산물인 옥수수, 대두, 소맥(3대 곡물)의 공급 초과로 가격 하락 초래
  - 남반구와 아시아가 주요 작황지인 원당, 커피, 코코아 등 소프트 자산(재배는 가능하나 장기 보관은 불가)은 가격 상승세 지속
  - 하드 자산인 비철금속 중 구리와 리튬의 주 원산지인 칠레(1위), 페루(2위)가 폭우 피해 등으로 공급리스크에 노출[14]

[엘리뇨/라니냐 지수]



주: Nino 3, 4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를 3개월 이동 평균한 지수
자료: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엘리뇨 발생 확률]



주: 1)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망
2) 전체 합 100%의 확률
자료: CPC Probabilistic ENSO Outlook

■ 엘리뇨로 촉발될 수 있는 농산물 등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

- 2024년 원자재가격은 '상저하고' 예상(World 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 2023. 11월)
  - 단기적인 고온현상으로 인해 원유 수요 감소, 곡물가격 하락 등이 예상되나 'Sugar Inflation'(주요 생산지인 인도, 인도네시아의 공급 감소) 발생 가능
  - 구조적 공급 문제 지속과 중국 및 제3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수요가 회복되면 가격 상승변수로 작용하여 시장가격을 견인할 가능성 존재

11)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Nino 3.4 구역(열대 태평양 5°S~5°N, 170°W~120°W)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석 달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며 최근 100년간 총 3차례 발생
12)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
13) Mankin, J. and Callahan, C., 'Persistent effect of El Niño on global economic growth,' Vol 380, Issue 6649, pp. 1064–1069, Science, 2023.5.18.
14) 2015년 폭우로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칠레 리튬 생산시설이 단기간 폐쇄, 칠레와 페루가 세계 구리 공급의 40% 차지, 칠레는 2대 리튬 생산지, 전체 공급의 25% 차지

[BOX 3] 국내 에너지 수요

■ **2023년 9월 「최종에너지 소비」[15]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최종에너지 소비는 천연가스, 석탄 및 전력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천연가스(70.1), 석탄(15.6), 전력(6.2), 신재생 및 기타(0.6), 석유(0.5), 열(-3.4), 도시가스(-5.8)
- 전월대비로는 신재생 및 기타, 열, 천연가스 및 전력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2.9% 감소
  - 전월대비 증감률(%): 신재생 및 기타(-12.3), 열(-11.1), 천연가스(-5.4), 전력(-4.9), 석유(-2.3), 도시가스(-1.6), 석탄(1.0)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

	2020	2021	2022p	2023p				
				7월	8월	9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03,747	215,664	213,720	17,125	16,925	16,435	4.2	-2.9
전년동기대비	-3.8	5.8	-0.9	-2.2	-4.4	4.2	-	-
석탄	31,152	32,251	29,988	2,621	2,572	2,660	15.6	1.0
석유	95,850	103,310	101,602	8,013	7,512	8,365	0.5	-2.3
천연가스	2,119	2,131	2,227	244	235	271	70.1	-5.4
도시가스	22,632	23,382	23,837	1,382	1,146	1,120	-5.8	-1.6
전력	42,733	44,748	46,039	3,480	3,632	3,932	6.2	-4.9
열	2,592	2,701	2,872	110	94	100	-3.4	-11.1
신재생 및 기타	6,668	7,141	7,154	545	578	677	0.6	-12.3

주: 1)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2) 개정된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작성
3) 신재생 및 기타는 바이오 및 폐기물, 지열, 태양 및 기타 포함, 수력은 합계에 포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15)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나. 전력수급동향

2023년 11월의 「정산단가」[16]는 전년동월대비 37.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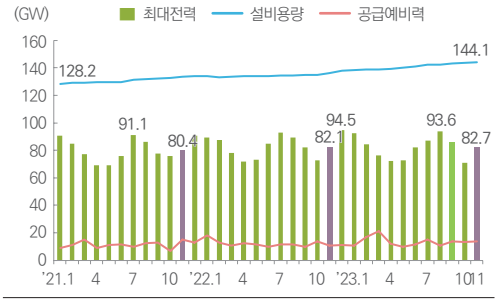
■ **11월 최대전력은 82.7GW로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13.7GW, 전력공급예비율 16.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17]**

- 11월 평균기온은 7.9℃로 평년(7.6℃)과 비슷하였으나, 중순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11월 내 일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11월 5일, 18.6℃)과 가장 낮았던 날(11월 30일, -1.2℃)의 기온차는 19.8℃로 1973년 이래 기온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11월 1kWh당 정산단가는 11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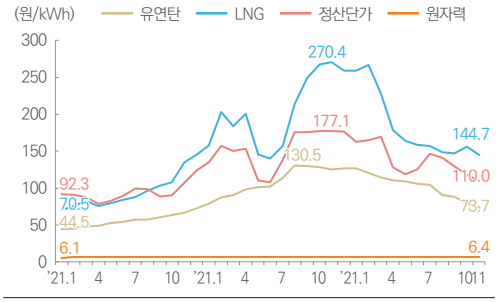
-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18]는 1kWh당 73.7원으로 전월(80.1원)대비 7.9% 하락하였고, 최고치인 2022년 8월(130.5원)대비 43.5% 하락하였으며,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144.7원으로 최고치인 2022년 11월(270.4원)대비 46.5% 하락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10.0원으로 전월대비로는 7.0% 하락하였으며, 최고치인 2022년 11월(177.1원)대비 37.9% 하락

[그림 11] 월별 최대전력 및 전력공급예비력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2]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6)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시 전력공급자(전력구매자)가 받아야 할 금액(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계산한 단위당 가격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의미

17)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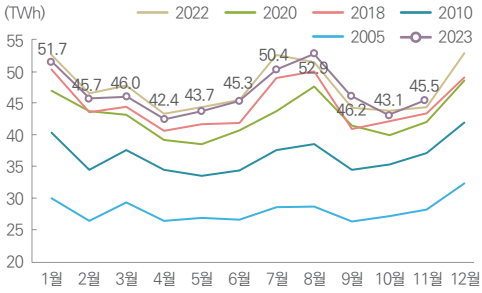
18)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1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은 11.1%, 신재생 및 기타는 13.9% 증가

- **11월 전력거래량[19]은 45,493GWh로 전월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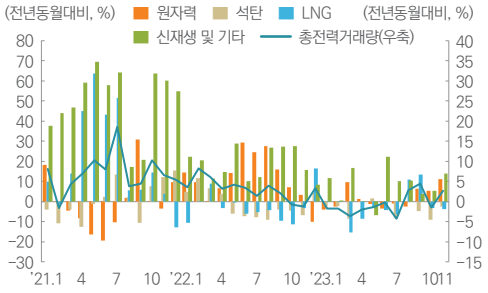
- **1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원자력은 11.1%, 신재생 및 기타는 13.9% 증가했으나, 석탄은 2.4%, 가스는 3.8% 감소**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32.6%, 석탄 31.0%, 가스 26.1%, 신재생 및 기타 9.5% 순

[그림 13]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4]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0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산업부문에서는 4.2% 감소

- **10월 총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1.4%, 593GWh 감소했는데, 가정부문의 수요가 4.2%, 245GWh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의 수요는 4.2%, 969GWh 감소**
  - 전년동월대비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4.2%, 서비스부문은 1.2% 증가하였으나, 산업부문은 4.2%, 공공부문은 0.4% 감소
  - 총 전력수요에서 각 부문의 비중은 산업 53.1%, 서비스부문 27.7%, 가정부문 14.6%, 공공부문 4.5%였음

- **총 전력수요는 전월대비 13.1% 감소했으며, 가정부문과 공공부문의 전월대비 감소율이 24.5%와 18.7%로 크게 나타남**

19)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0	2021	2022		2023			
				10월	9월	10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09,270	533,431	547,933	42,343	48,056	41,750	-1.4	-13.1
전년동기대비	-2.2	4.7	2.7	1.2	6.0	-1.4		
가정부문	74,074	77,558	78,558	5,864	8,086	6,109	4.2	-24.5
공공부문	23,666	25,153	26,218	1,881	2,305	1,873	-0.4	-18.7
서비스부문	144,401	148,060	155,220	11,447	13,915	11,585	1.2	-16.7
산업부문	267,129	282,660	287,937	23,152	23,749	22,183	-4.2	-6.6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3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3 부동산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04%, 수도권은 0.06%, 지방은 0.02%로 전지역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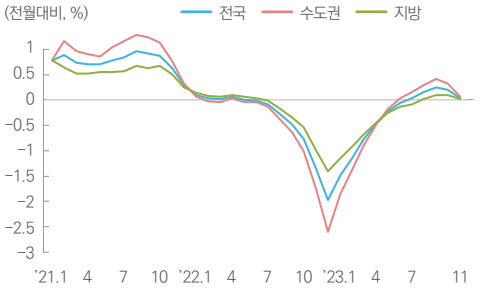
- 매매시장 관망세가 길어지며 일부 지역은 하락 또는 보합 전환
-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135개→104개)은 감소, 보합 및 하락지역(41개 → 73개)은 증가

11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상승폭 축소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전국 0.21%, 수도권 0.36%, 지방 0.07%로 전지역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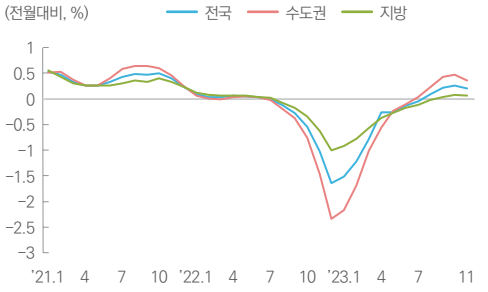
- 역세권, 선호 지역 위주로 전·월세 상승세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상승폭 축소

[그림 15]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16]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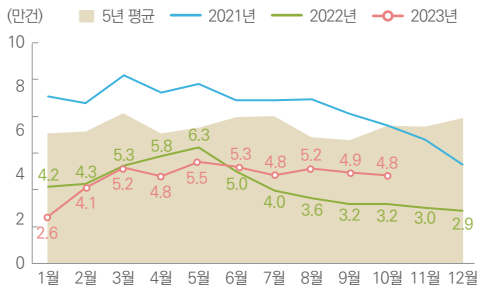
10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 은 전월대비 감소,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증가

■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 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 전년동월대비 48.6% 증가**

- 수도권(1만 9,791건)은 전월대비 13.0% 감소, 지방(2만 8,008건)은 전월대비 4.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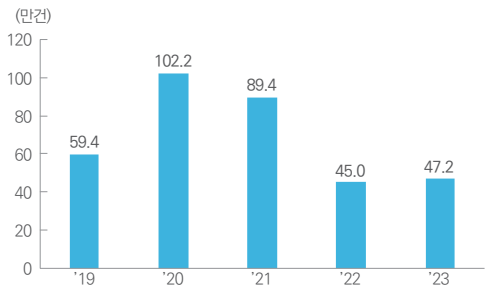
■ **10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47만 1,603건으로 전년동기(44만 9,967건)대비 4.8% 증가**

[그림 17] 월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18] 연도별 8월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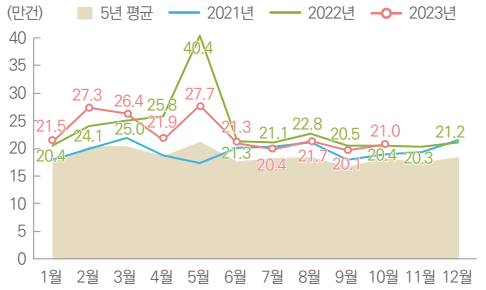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10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누적 거래량은 전년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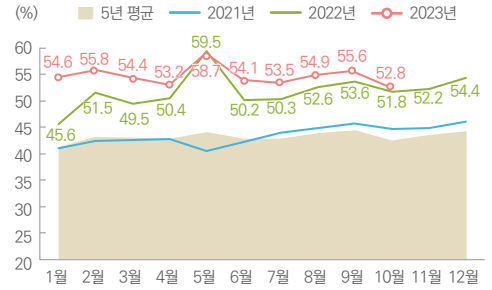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499건으로 전월대비 4.5% 증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전세(9만 9,296건)는 전월대비 11.0% 증가, 월세(11만 1,153건)는 전월대비 0.8% 감소
- **10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29만 4,403건으로 전년동기(241만 8,569건)대비 5.1% 감소**

[그림 19]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0]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4 재정

가. 총수입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수입은 492.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8.4%) 감소[20]

■ **월별 전년동월 대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

- 전년동월 대비 총수입 증가율: 7월 -4.0%, 8월 -7.8%, 9월 -6.3%, 10월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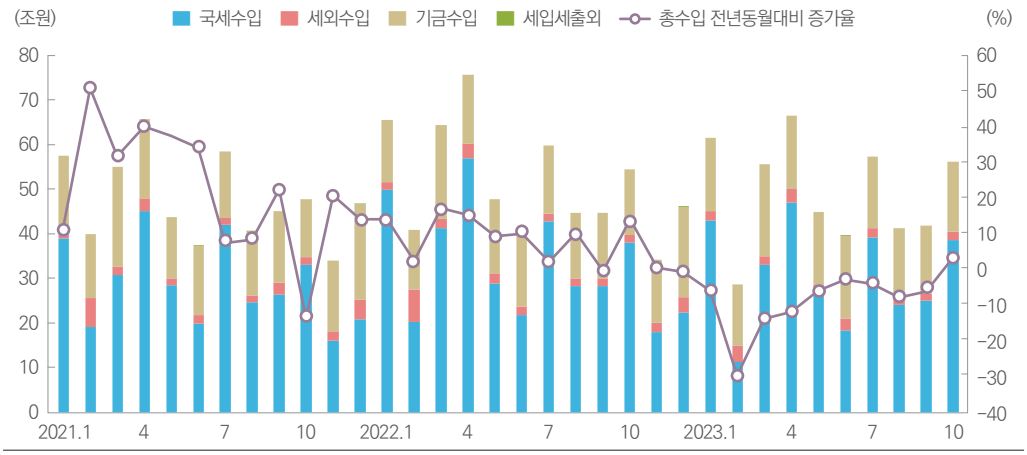
■ **누계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4조원 감소한 305.2조원**

-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위축 등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14.6조원 감소한 93.9조원
-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등으로 23.7조원 감소한 76.1조원
- 부가가치세는 수입감소(수입액 변동:(2022.1~10월)6,129억불 → (2023.1~10월) 5,374억불, -12.3%) 등으로 5.4조원 감소한 74.2조원
-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조원 감소한 6.1조원

■ **누계 세외수입은 국제금리상승에 따른 한은잉여금 감소로 2.7조원 감소한 22.6조원**

■ **누계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원 증가한 164.5조원**

[그림 21] 월별 총수입 실적치 추이(2021.1~2023.10)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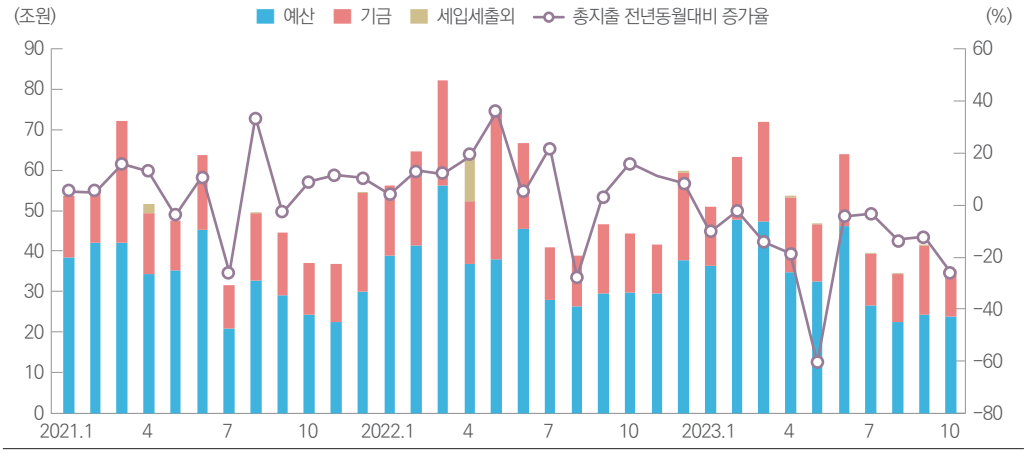
20) 이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의 실적치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나. 총지출

2023년 1월~10월 누계 총지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8조원(-13.4%) 감소

-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2조원 감소한 343.9조원**
-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2조원 감소한 158.2조원**
- **2023년 10월의 전년동월 대비 총지출 증가율 -26.0%로 큰 폭으로 감소**
  - 전년동월 대비 총지출 증가율: 8월 -13.0%, 9월 -12.0%, 10월 -26.0%

[그림 22] 월별 총지출 실적치 추이(2021.1~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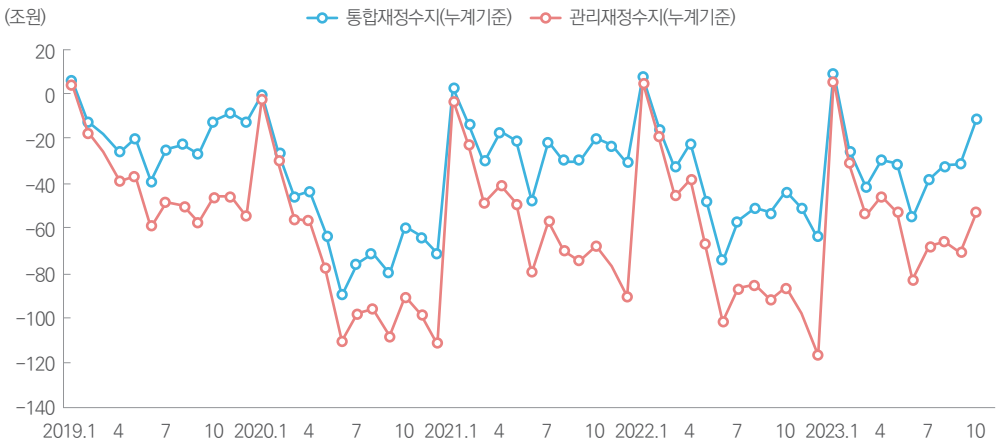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재정수지

2023년 1~10월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

-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32.6조원 감소**
-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34.1조원 감소**

[그림 23] 월별 누계기준 재정수지 추이(2019.1~2023.10)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국 경제 지표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2Q	3Q	10월	11월
생산	미국	4.4	3.4	3.7	4.1	2.1	-2.5	-0.3	0.7	2.5	-0.6	
	유로	0.4	-0.2	-0.9	0.3	1.1	-1.2	-0.8	0.4	-0.6		
	일본	5.8	0.0	0.8	-1.5	3.1	-1.7	-1.8	1.4	-1.2	1.0	
소비	미국	8.4	2.5	1.0	2.0	1.6	1.2	3.8	0.8	4.0	0.2	
	유로	0.3	-0.2	0.3	-0.6	0.3	-0.9	0.2	0.1	-0.3	0.1	
	일본	2.0	2.6	-0.4	1.3	1.3	1.2	2.5	0.5	2.5	-1.6	
물가	미국	4.7	8.0	8.0	8.6	8.3	7.1	5.8	4.0	3.5	3.2	
	중국	0.9	2.0	1.1	2.2	2.7	1.8	1.3	0.1	-0.1	-0.2	
	유로	2.6	8.4	6.1	8.0	9.3	10.1	8.0	6.2	4.9	2.9	2.4
	일본	-0.2	2.5	0.9	2.4	2.9	3.9	3.6	3.4	3.1	3.3	
국채금리	미국	1.4	3.0	2.3	3.0	3.8	3.9	3.5	3.8	4.6	4.9	4.3
	유로	-0.3	1.2	0.5	1.3	2.1	2.6	2.3	2.4	2.8	2.8	2.4
	일본	0.1	0.2	0.2	0.2	0.2	0.4	0.4	0.4	0.8	0.9	0.7

주: 1. 생산 및 소비는 전기대비,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Datastream

https://datalink.nabo.go.kr/9791167991134/2

해외경제 동향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 선행지표는 하락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4 → (9월)0.3 → (10월)-0.6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6 → (9월)0.7 → (10월)-0.1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3.9월)49.0 → (10월)46.7 → (11월)46.7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4.5 → (9월)4.5 → (10월)4.6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8월)4.6 → (9월)5.5 → (10월)7.6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8월)3.2 → (9월)3.1 → (10월)2.9
- 종합PMI: ('23.9월)52.0 → (10월)50.7 → (11월)50.4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 산업생산(전월대비, %): ('23.7월)-1.3 → (8월)0.6 → (9월)-1.1
- 종합PMI(전월대비, %): ('23.9월)47.2 → (10월)46.5 → (11월)47.1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7 → (9월)-0.1 → (10월)0.1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9월)4.3 → (10월)2.9 → (11월)2.4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7 → (9월)0.5 → (10월)1.0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2 → (9월)0.4 → (10월)-1.6
- 종합PMI: ('23.8월)52.6 → (9월)52.1 → (10월)50.5 → (11월)50.0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요 통화의 대달러 환율이 하락

- 11월말 국채(10년) 금리는 미국 4.33%로 전월대비 0.60%p 하락한 가운데,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
- 1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2.87%, 2.29%, 2.48% 하락

1 미국

미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 선행지표는 하락

■ **10월 중 「전산업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 전환**

-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11월 중 46.7로 13개월 연속 기준치(50)를 밑돌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4 → (9월)0.3 → (10월)-0.6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3.8월)0.1 → (9월)0.4 → (10월)-0.7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3.9월)49.0 → (10월)46.7 → (11월)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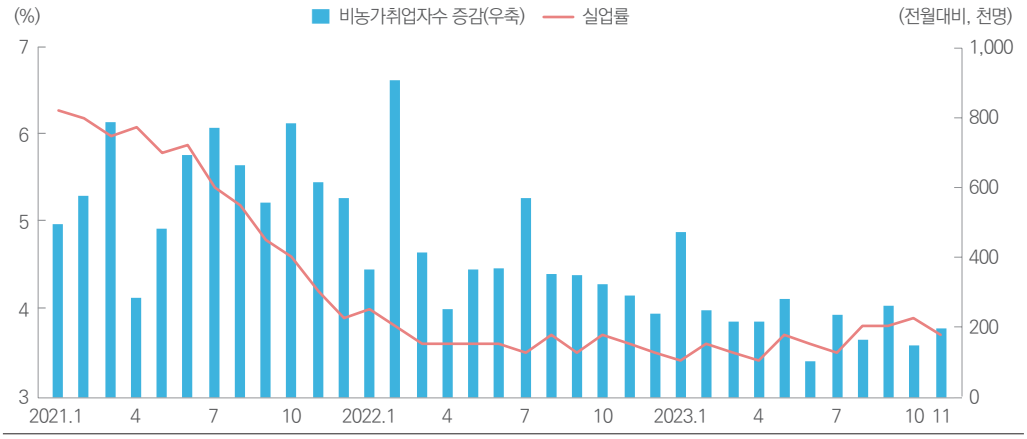
■ **10월 중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감소 전환되었고,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서비스소비(0.2%)와 상품소비(0.1%)에서 모두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

- 11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102.0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지난 7월(117.0) 이후 빠르게 하락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6 → (9월)0.7 → (10월)-0.1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3.8월)0.1 → (9월)0.4 → (10월)0.2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3. 9월)103.0 → (10월)102.6 → (11월)102.0

■ **11월 중 노동시장은 고용증가폭은 전월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은 하락**

- 11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9.9만 명 증가하여 전월(15.0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3.7%로 전월(3.9%)보다 하락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교육·의료업(9.9만 명), 여가·음식숙박업(4.0만 명) 등을 중심으로 15.0만 명 증가하였고,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4.9만 명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3.9월)26.2 → (10월)15.0 → (11월)19.9
- 실업률(%): ('23.9월)3.8 → (10월)3.9 → (11월)3.7

[그림 1]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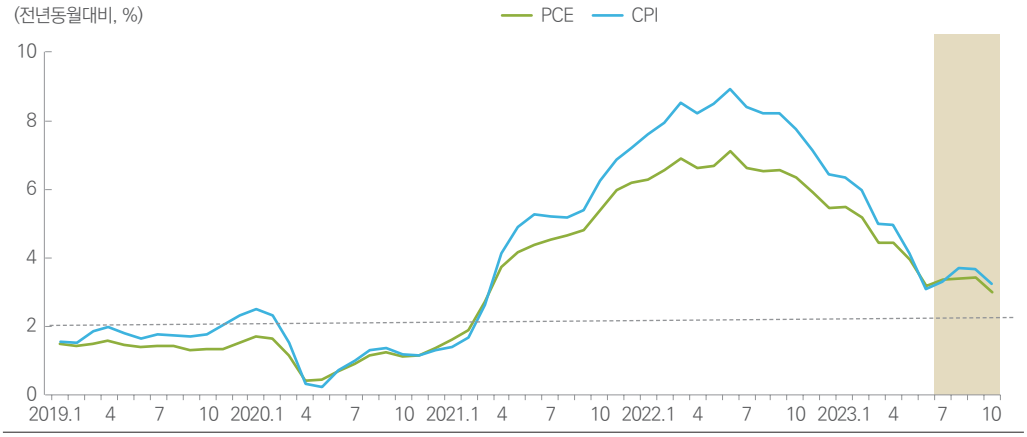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전월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계절조정 전월비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9월 1.5% → 10월 -2.5%) 전환**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8월)3.7 → (9월)3.7 → (10월)3.2
-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3.8월)3.5 → (9월)3.4 → (10월)3.0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23.9월)3.2 → (10월)4.2 → (11월)4.5

[그림 2]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CPI)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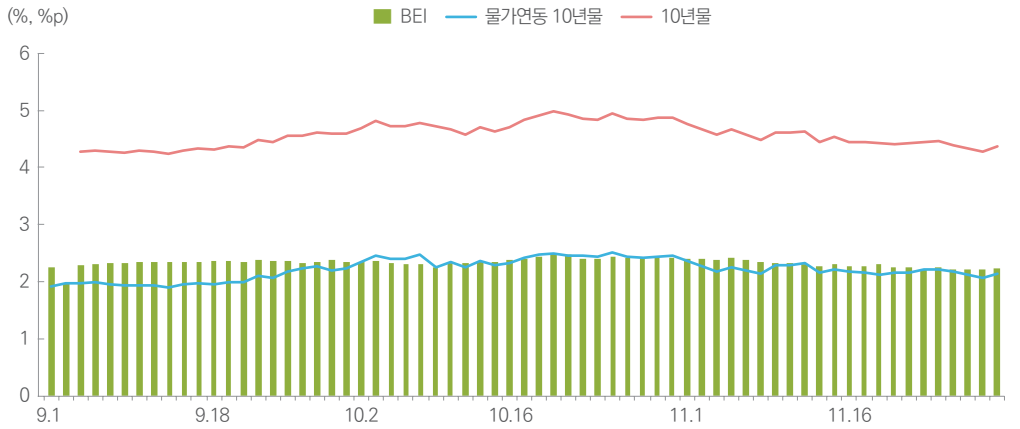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11월 중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 등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하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

- 장기금리(10년물기준)는 10월 중 4.80%로 전월대비 42pb 상승하였으나, 11월에는 4.50%로 30bp 하락하였고,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단기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여 전월에 비해 소폭 확대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3.9월)4.38 → (10월)4.80 → (11월)4.50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3.9월)5.02 → (10월)5.07 → (11월)4.88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3.9월)-0.64 → (10월)-0.27 → (11월)-0.38
- 미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에서 동결(5.25~5.50%)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결정

■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의 BEI(break-even inflation)는 11월 중 2.3%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 미국의 10년물 국채 BEI의 일별 추이



주: BEI(Break Even Inflation) = 10년물 금리 – 물가연동 10년물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10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2.9%), 제조업(5.1%), 전기·가스·수도업(1.5%)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3.8월)4.5 → (9월)4.5 → (10월)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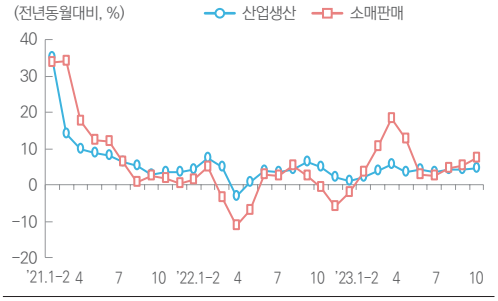
■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6% 증가**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6.5%)과 외식업(17.1%)에서 모두 증가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8월)4.6 → (9월)5.5 → (10월)7.6

■ **10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누적치)」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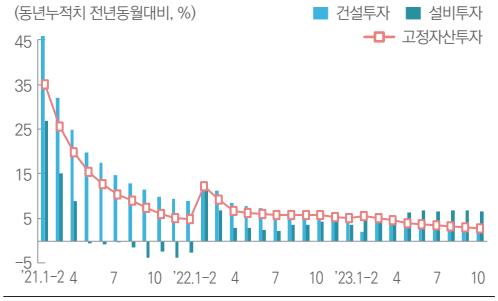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2.2%)와 설비투자(6.6%)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3.8월)3.2 → (9월)3.1 → (10월)2.9

[그림 4]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5]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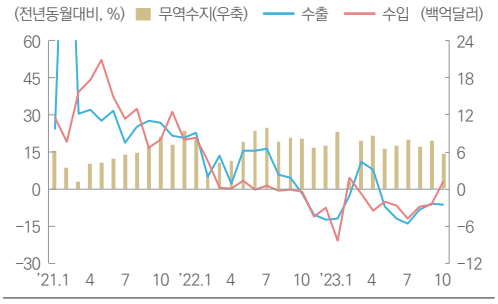
■ **10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565.3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4% 감소,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무역수지(억달러): ('23.8월)678.1 → (9월)775.8 → (10월)565.3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8.4 → (9월)-6.1 → (10월)-6.4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8월)-7.2(9월)-6.2 → (10월)3.0

■ **10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0%로 집계되었으며, 10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10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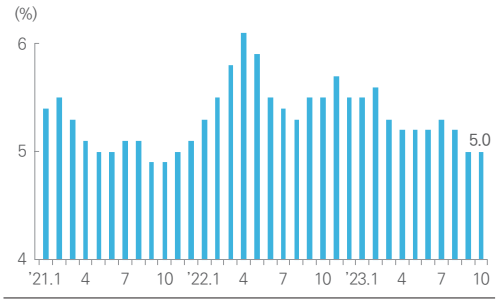
- 실업률(%): ('23.8월)5.2 → (9월)5.0 → (10월)5.0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3.8월)924 → (9월)1,022 → (10월)1,109

[그림 6]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7]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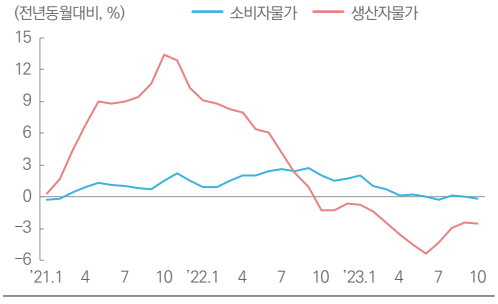
■ **10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 식료품외 물가(0.7%)는 상승하였으나 식료품 물가(-4.0%)가 하락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8월)0.1 → (9월)0.0 → (10월)-0.2

■ **11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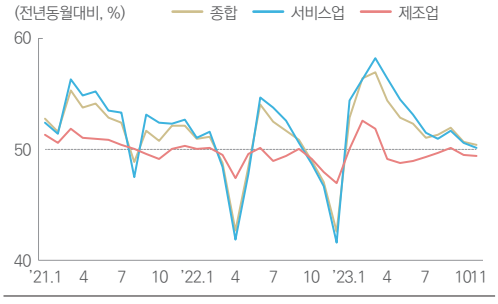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였으나 전월보다 0.3p 하락
- 11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9.4, 50.2를 기록
- 종합PMI: ('23.9월)52.0 → (10월)50.7 → (11월)50.4

[그림 8]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9]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물가는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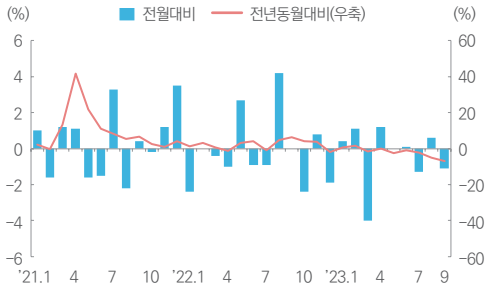
■ 9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 감소

- 자본재(0.3%)에서 증가했으나 소비재(-2.0%), 중간재(-0.3%) 등에서 감소
- 국가별로는 독일(-1.4%), 프랑스(-0.6%)를 중심으로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3.7월)-1.3 → (8월)0.6 → (9월)-1.1

■ 11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47.1로 6개월 연속 50선 하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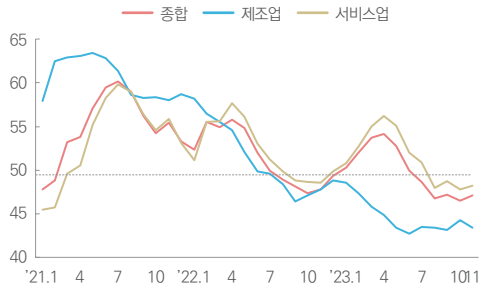
- 제조업 PMI는 43.4로 둔화가 지속되고 서비스 PMI도 48.2로 50선 이하로 지속
- 유로지역 종합PMI(전월대비, %): ('23.9월)47.2 → (10월)46.5 → (11월)47.1
- 유로지역 제조업PMI(전월대비, %): ('23.9월)43.1 → (10월)44.2 → (11월)43.4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전월대비, %): ('23.9월)48.7 → (10월)47.8 → (11월)48.2

[그림 1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그림 11] 유로지역 PMI 추이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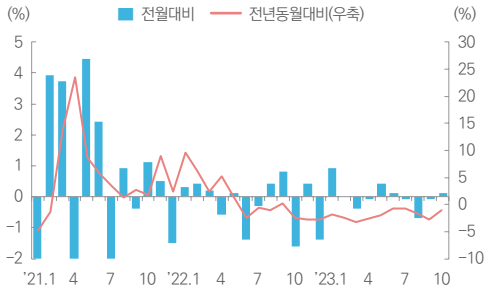
■ 10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0.1% 증가

- 소매판매는 온라인 소매판매(2.2%) 비식료품(0.8%)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7 → (9월)-0.1 → (10월)0.1

■ 11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6.9로 소폭 증가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23.9월)-17.7 → (10월)-17.8 → (11월)-16.9

[그림 12]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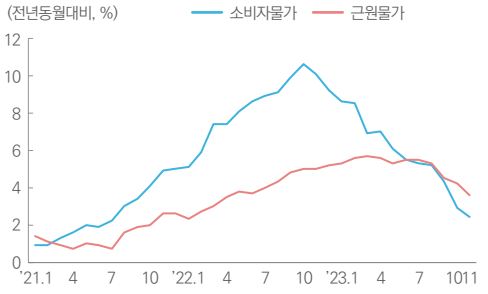
[그림 1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 11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2.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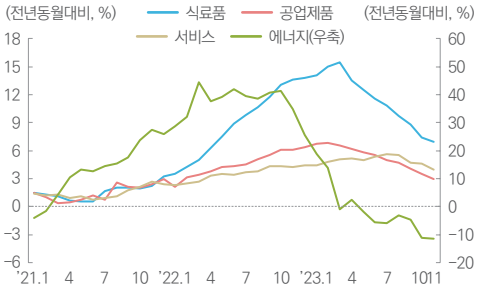
- 에너지(-11.5%)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근원물가도 상승세 둔화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9월)4.3 → (10월)2.9 → (11월)2.4
- 유로지역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3.9월)4.5 → (10월)4.2 → (11월)3.6
- 유로지역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3.9월)-4.6 → (10월)-11.2 → (11월)-11.5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5] 유로지역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10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6.5%

- 10월 청년실업률은 14.9%
- 유로지역 실업률(%): ('23.8월)6.5 → (9월)6.5 → (10월)6.5

4 일본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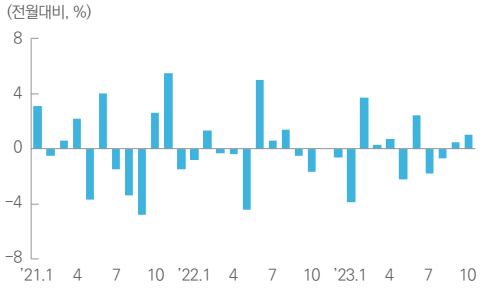
■ 10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0% 증가

- 전자부품 및 장치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3.8월)-0.7 → (9월)0.5 → (10월)1.0

■ 11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0을 기록하며 확장국면이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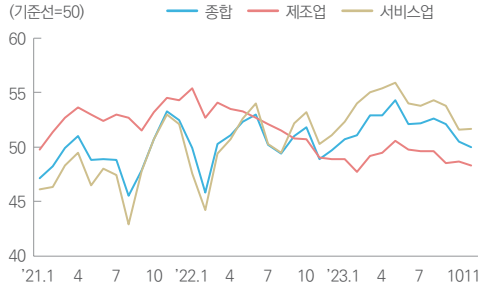
- 종합PMI: ('23.8월)52.6 → (9월)52.1 → (10월)50.5 → (11월)50.0
- 제조업PMI: ('23.8월)49.6 → (9월)48.5 → (10월)48.7 → (11월)48.3
- 서비스PMI: ('23.8월)54.3 → (9월)53.8 → (10월)51.6 → (11월)51.7

[그림 16]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7]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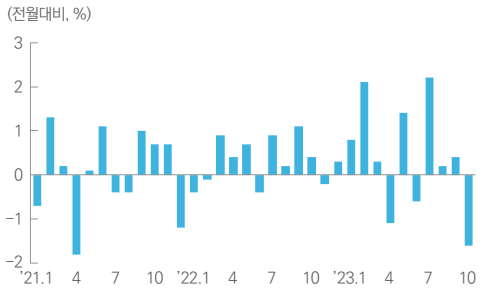
■ 10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6%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준 4.2% 증가하며 20개월 연속 증가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8월)0.2 → (9월)0.4 → (10월)-1.6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3.8월)7.0 → (9월)6.2 → (10월)4.2

■ 10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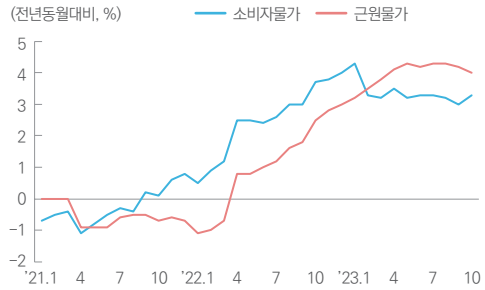
-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3.8월)3.1 → (9월)3.0 → (10월)3.3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3.8월)4.3 → (9월)4.3 → (10월)4.0

[그림 18]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9]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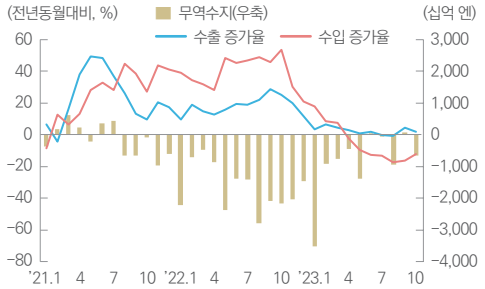
■ **10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661억엔 적자를 기록**

-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석탄, 액화 천연가스 등) 수입이 감소하며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십억엔): ('23.8월)-937.8 → (9월)65.4 → (10월)-661.0
-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2.2%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3.8월)-0.8 → (9월)4.3 → (10월)1.6
- 수입(전년동월대비, %): ('23.8월)-17.7 → (9월)-16.3 → (10월)-12.2

■ **11월 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48.2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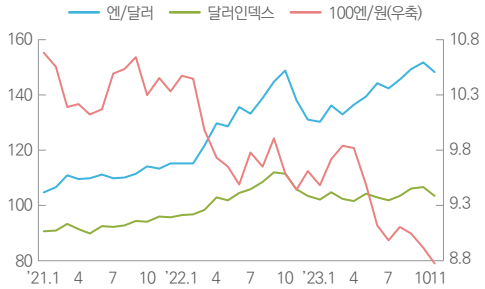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월말): ('23.8월)145.5 → (9월)149.4 → (10월)151.7 → (11월)148.2

[그림 20]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1]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5 글로벌 금융시장

가. 금리

11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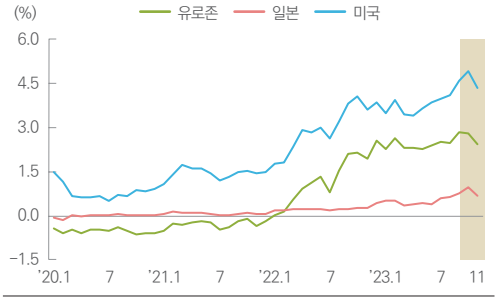
■ **11월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물가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하락**

- 11월말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4.33%로 10월말 4.93% 대비 0.60%p 하락
- 11월말 유로존과 일본의 국채(10년) 금리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한 2.45%, 0.67%를 기록

■ **한편 미 연준은 7월 기준금리를 5.00~5.25%에서 5.25~5.50%로 0.25%p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9월, 11월, 12월 기준금리를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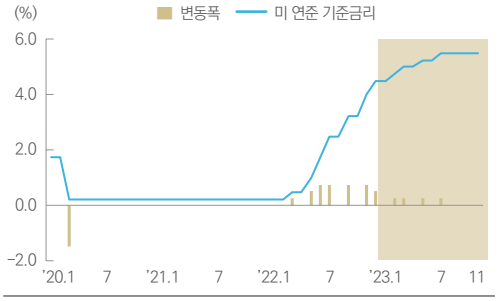
- 12월 기준 미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점도표[21]상 2024년 기준금리는 4.75%로, 지난 9월 점도표에 비해 0.50%p 하락
- 한편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5.25~5.50%는 2000년 이후 최고치

[그림 22]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그림 23] 미 연준 기준금리 추이



자료: Morningstar

21) 점도표는 미 연준 위원들이 예측하는 적절한 수준의 미래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점으로 찍은 도표

나. 환율

11월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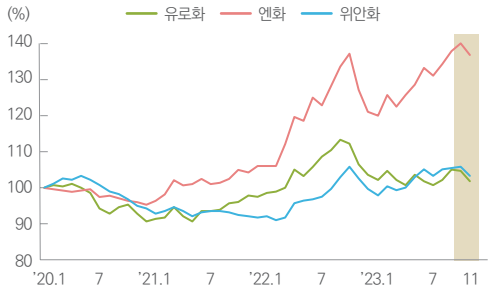
■ **11월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중동사태 불확실성에도 불구 미 연준의 긴축종료 기대, 미 국채금리의 하락 등에 따라 전월말 대비 하락**

- 1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2.87%, 2.29%, 2.48% 하락
- 한편 11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년말 대비로는 각각 -1.68%, 13.03%, 3.43% 상승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22]는 11월말 기준 전월말 대비 2.97% 하락한 103.5 기록**

- 11월말 달러인덱스는 전년말 대비로는 0.02% 하락

[그림 24]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주: 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25]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22)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미 연준이 산출해 발표

다. 주가

11월 「글로벌 주가」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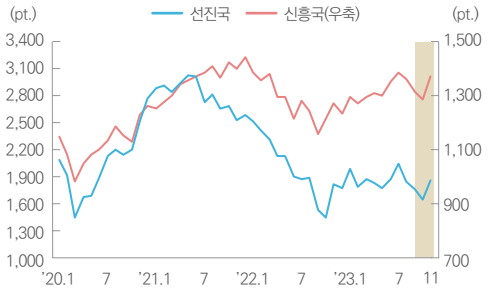
■ **11월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 11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9.21%, 신흥국 주가는 7.86% 상승
- 한편 11월말 선진국 주가는 전년말 대비 16.17%, 신흥국 주가는 3.21% 상승한 수준

■ **11월말 미국, 독일, 일본 주가도 전월말 대비 각각 8.77%, 9.49%, 8.5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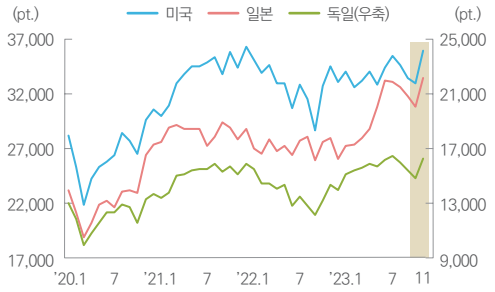
- 11월말 미국, 독일, 일본의 주가는 전년말 대비로도 각각 8.46%, 16.46%, 28.33% 상승한 상황

[그림 26]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그림 27]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라. 금융위험 지표

11월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는 전반적 안정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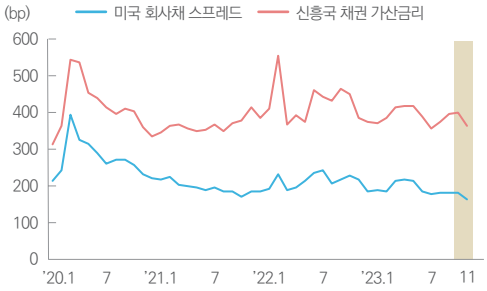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험 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23]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24]는 중동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하락세**

- 11월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전월대비 36bp 하락한 365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17bp하락한 165bp를 기록

■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25]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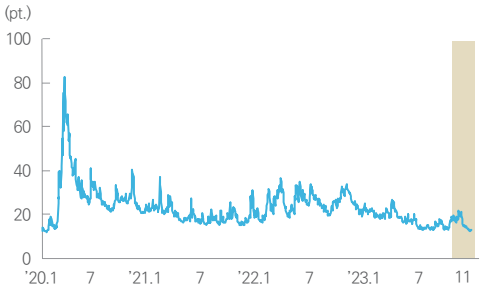
- 11월 VIX지수는 전월대비 4.87p 하락한 14.02를 기록
- 이는 2023년 6월 14.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그림 28] 글로벌 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9] VIX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23)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하락

24)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국의 Baa 등급 10년물 회사채 금리와 국채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부각되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스프레드가 확대

25)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500 지수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라고도 함

V

경제동향

기술경제 동향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기술경제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

기술경제 동향

국내 수소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 **이슬기** 부연구위원

1 배경

➤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 및 원료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로 인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수소의 역할 강조**

- 일조량 및 바람은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하여 전력 수급의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의 역할 증대
-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추후에 활용하는 형태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가능

■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인 산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및 수송계에서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 수요 확대 전망**

- 수소환원제철(철강), 원료 대체(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으로 수소 활용
- 수송부문에서도 수소차가 전기차와 함께 승용차 및 상용차 부문에서 내연기관을 대체할 전망

■ **수소산업은 녹색신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

-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탄소다배출 업종 중심의 우리 주력 제조업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
-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중요성 강화

➤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이후 약 5년에 걸쳐 20여 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수소산업 육성 추진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 발표, 세계최초 수소법(「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 시행('21.2) 및 개정안 시행('22.12) 등 지속적 정책 추진
- 수소를 경제의 각 부문에서 활용하는 '수소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이 수소의 보급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수소산업의 육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 지속

➤ 본 고에서는 수소산업의 성장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사업체 수, 매출액, 고용 등의 측면에서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

➤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은 전문서비스부터 제조(소재, 부품·장비), 유통, 발전, 기타 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됨.

■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의 주사업 대표설명에 '수소', '연료전지' 등의 키워드를 제출한 사업체들로 수소산업을 구성하고 이들의 밸류체인을 정의**

- 주사업 대표설명이란 사업체가 자신의 사업영역을 스스로 적어서 제출한 빅데이터 형태의 텍스트 자료

[표 1]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성

밸류체인		KSIC	주사업 대표 설명
전문서비스		M.70-73	연료전지 차량 개발, 수소관련 연구개발, 대기업 본사
제조	소재	C.20-25	수소제조, 수소생산, 수전해촉매, 차량용 수소용기
	부품·장비	C.26-30	수소개질기, 수소차부품, 연료전지 촉매 도포, 수소용 기계장비, 연료전지 스택, 충전소용 압축기
유통		G.46-47	수소 도소매, 수소충전소
발전		D.36	수소 이용 전력 생산
기타서비스		N.74-75 C.34, S.95 F.41-42 L.68, H.52	충전소 유지보수, 액화수소 보관업

자료: 이슬기 외(2023),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7

➤ 사업체 수는 2015년 58개에서 2021년 279개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2021년에도 여전히 산업 발달 단계상 태동기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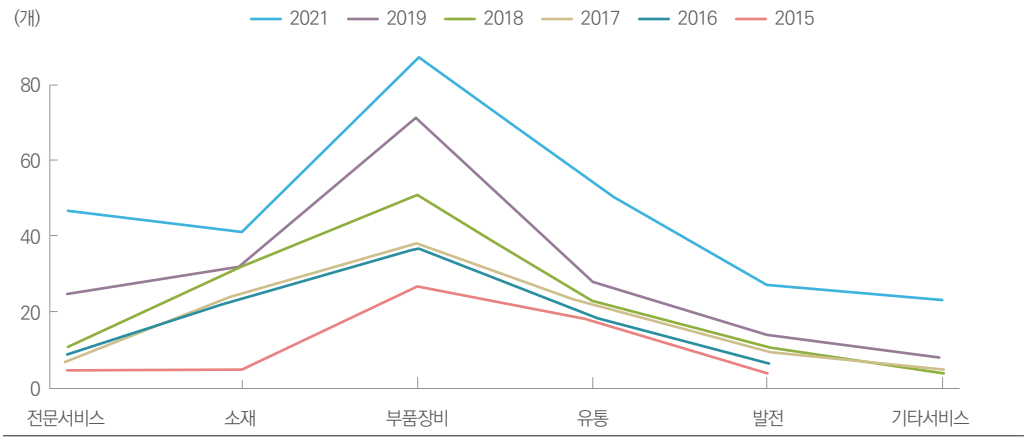
■ **사업체 수의 관점에서 수소산업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성장**

- 단, 전문서비스와 소재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확대

■ **분석 전 기간에서 수소산업에서는 부품·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

- 제조업의 비중은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 2021년 유통 및 전문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인해 46%로 감소

[그림 1]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사업체 수



주: 2020년에는 통계의 작성 방식에 일부 차이점이 발생하여 '주사업 대표설명' 변수에 누락값이 50% 가량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연도의 추정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려워져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2016년부터 국내 수소산업 매출액은 대부분 소재산업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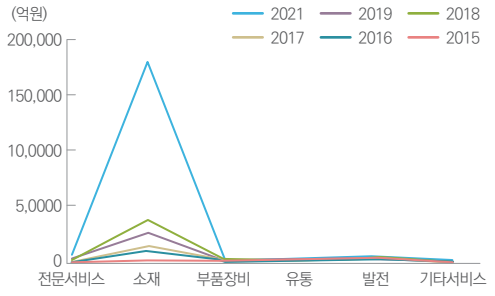
- **사업체 수 현황 추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소재산업 매출액은 소수의 대형 사업체로부터 오고 있음을 유추 가능**

- **단, 2015년에는 예외적으로 대다수의 매출액이 발전산업에서 발생**
  - 이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으로 인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이 매출액을 발생시킨 반면, 국내에 발전사업 외의 다른 수소산업 생태계는 갖추어지지 못한 탓으로 해석

- **하지만 그 이후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유통업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매출 성장이 이루어져 발전 부문의 비중이 점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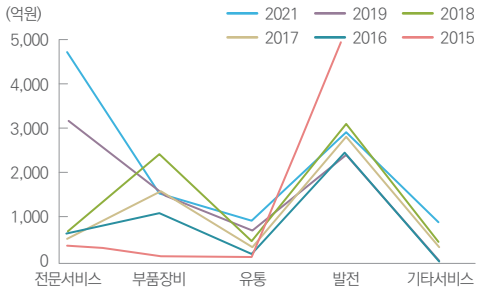
- **2021년 소재산업의 독주가 더욱 두드러져 2016년 66.8%에서 2019년 75.8%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오던 소재산업은 2021년 전체 수소산업의 94.2%까지 성장**
  - 이러한 결과는 2021년 SK, 포스코 등 국내 17개 기업이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인 「H2서밋」을 결성하며 수소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수소법에 근거하여 수소전문기업의 지정이 시작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대기업들은 특히 수소의 생산, 저장 등과 관련한 소재산업에서 수소산업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주 사업 설명변수에 '수소' 관련 단어를 포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그림 2]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그림 3]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매출액(소재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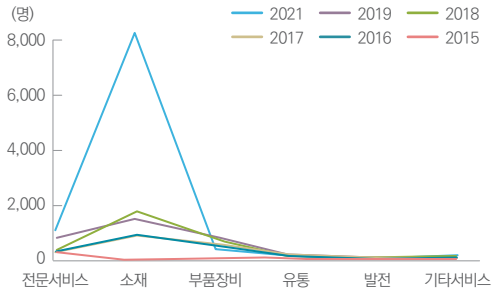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고용에서도 매출액과 비슷하게 소재부문의 비중 확대 관측

- **2021년 소재부문 대기업의 수소산업 참여로 소재산업의 고용 비중 80.3%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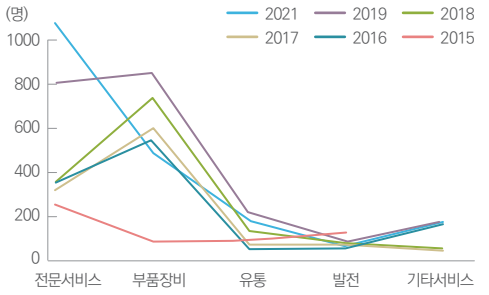
- **부품·장비 제조업은 사업체 수 대비 매출액이 낮았으나, 고용 창출 잠재력은 우수**
  - 2019년 부품·장비 제조업의 매출액과 고용 비중은 각각 20.3%, 39.6%였으며, 2021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14.1%, 24.7%로 변화(소재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만으로 계산한 수치)

[그림 4]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고용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그림 5] 국내 수소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고용(소재산업 제외)



자료: 이슬기 (2023),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11월호

3 국내 수소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조건

➤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은 적어도 정책 추진 초반에 산업 성장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

- 2019년 전문서비스업과 부품·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내 사업체 수가 크게 성장했으며, 점차 낮아지던 수소산업으로의 진입률이 2019년 다시 큰 폭으로 반등
- 이러한 성장세는 2021년까지 이어져 사업체 수가 2019년 대비 56% 확대된 데에 더해 대기업의 진입으로 산업 전체의 매출액(474%)과 고용(180%)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
- 특히 소재산업은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 직후에는 유의미한 규모의 성장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1~2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 2021년 대기업의 진입은 수소산업의 양적 팽창을 실현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중소기업의 대규모 참여로 이어질 필요

-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체적인 R&D 및 투자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책 지원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산업 발달 초기 대기업의 참여는 산업 전체 규모를 크게 바꿀 수 있음
- 정부의 국내 수소산업 육성 의지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정부 정책상의 목표가 실제로 이행되는 모습을 장기간에 걸쳐 누적해 가는 것이 중요
  - 풍력산업에서 관측되는 것과 같이(이슬기 외, 2021)[1] 신산업의 경우 정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쉽사리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함
- 고용창출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진입으로 수소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

1) 이슬기 외(2021),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VI

경제 현안

독일의 경기 침체의 원인과 대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김상용** 분석관(6788-4680)

1 최근 독일 경제 동향

독일의 2023년 실질 GDP는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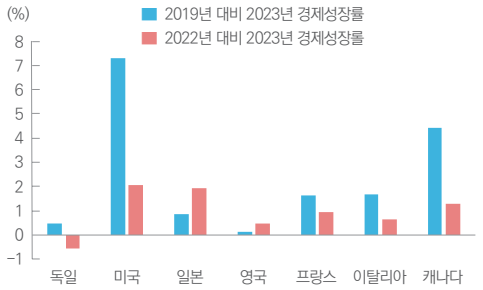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와 3분기에 독일의 실질 GDP는 역성장을 기록**
  - 전년 동기대비 1분기 0.2%, 2분기 -0.4%, 3분기 -0.8% 성장[1)]
- **2023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주요기관 전망치를 살펴보면 IMF -0.5%, OECD -0.2%, GCEE[2)] -0.4%**
  - 반면 2023년 G7 국가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1.0~1.1%

코로나19 이후 독일의 경제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 **2019년 대비 2023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4년간 0.5%[3)]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독일의 경제는 정체되어 있음**
  - 반면, G7 국가는 평균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실질 GDP는 2.4% 증가
  -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3%와 4.4%의 경제 성장을 기록
-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든 2021년부터는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G7 평균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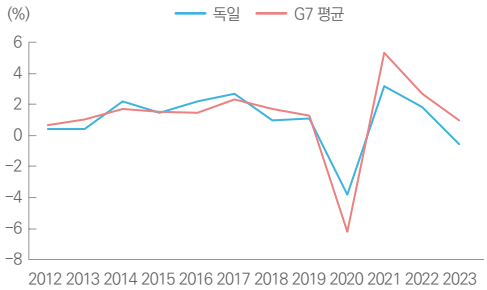
1) 독일 연방 통계청
2) GCEE :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독일 경제 전문가 위원회
3) 독일 및 G7 국가의 2023년 실질 GDP는 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계산

[그림 1] G7의 2019·2022년 대비 2023년 실질 GDP 성장률



주: 2023년 실질 GDP는 IMF 전망치를 이용
자료: IMF WEO (Oct,2023)

[그림 2] 독일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주: 2023년 실질 GDP는 IMF 전망치를 이용
자료: IMF WEO (Oct,2023)

2 독일 경기 침체의 원인

➤ 독일경제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4]는 30.3%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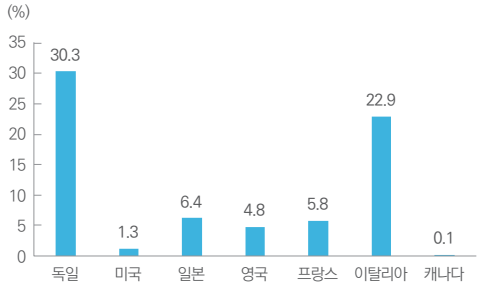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상은 독일의 전력가격을 크게 상승시킴**

- 2020년 4월 대비하여 2022년 8월에는 천연가스가격은 33배 도매전력가격은 28배 증가
- 2023년에는 에너지 및 전력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저렴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되면서 과거 2019년 및 2020년 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

■ **경제부분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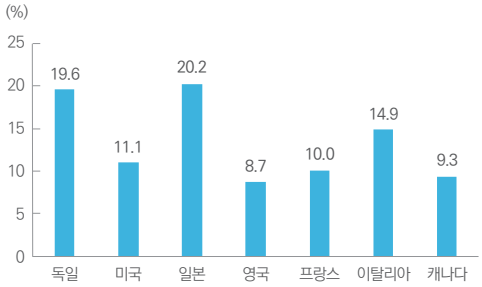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독일의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19.6%로 G7 국가 중 일본(20.2%) 다음으로 높음
-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부터 에너지 집약산업[5]을 중심으로 산업생산량이 감소
- 2023년 9월 기준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산량은 2018년 연평균 생산량의 81.2%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산업의 생산 지수 또한 2018년 대비 89.2% 수준으로 하락

[그림 3] '21년 G7 국가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자료: I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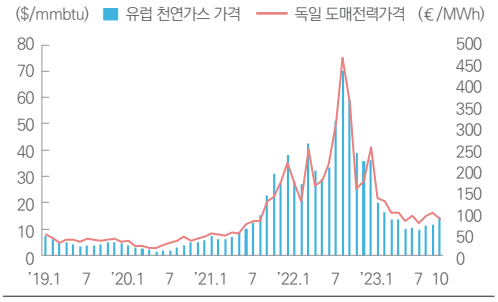
[그림 4] G7 국가의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자료 : World bank,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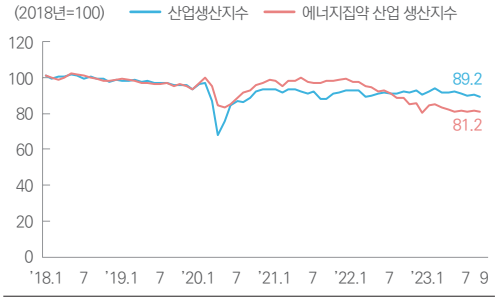
4)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 (러시아에서 수입한 연료 / 국내 총 소비 연료) × 100
5) 에너지 집약산업에는 화학제품 제조, 금속 제작 및 가공, 원유 가공 관련 산업들이 포함

[그림 5] 천연가스 가격 및 독일 도매전력 가격추이



자료: World bank, Ember DB

[그림 6] 독일 산업 생산 지수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민간 소비 또한 위축

-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 2023년의 민간 소비가 전년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정부소비 역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에 관한 지원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1] 독일의 지출 부분별 GDP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2	2023f
GDP	1.8	-0.4
최종소비	3.2	-1.3
민간소비	3.9	-0.8
정부소비	1.6	-2.4

주: 2023년 수치는 GCEE 전망치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GCEE Annual Report(2023)

➤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노동시장 경색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독일의 실업률은 3%[6]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

- 코로나 기간 중 해고, 조기 은퇴, 병가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인력이 코로나 이후 전부 복귀하지 않아 낮은 실업률을 유지

6) ILO 기준 적용 시 독일의 실업률은 3% 수준이며, 독일 내부 기준으로는 5%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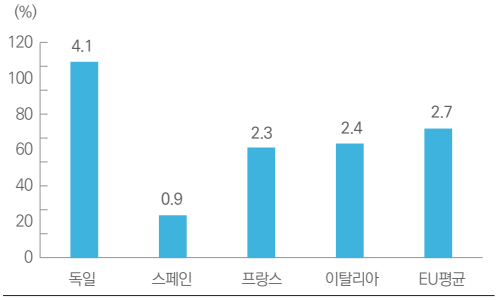
■ **낮은 실업률과는 반대로 독일의 빈 일자리율[7]은 2023년 2분기 기준 4.1%로 유럽 평균 2.7%에 비해 높은 편**

- 빈 일자리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구인 수요는 있지만, 해당 일자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시장이 경색되었음을 의미
- 2023년 7월 기준 독일 기업 중 43%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응답[8]

[그림 7] 독일의 실업률

주: ILO 기준으로 집계된 실업률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그림 8] '23년 2분기 유럽 주요국의 빈 일자리율



자료: Eurostat

■ **독일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노동력 부족이 가속화될 수 있음**

- 독일의 고령 인구 비율[9]은 2022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 중 6번째로 높음[10] [11]
- 독일 경제 전문가 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까지 현재의 노동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0만 명의 이민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추정[12]

7) 빈 일자리율 = 빈 일자리 수 / (채용된 일자리 수 + 빈 일자리 수)×100
8) Ifo business Survey (2023.8)
9)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0) OECD data
11)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17.5%로 OECD 국가들 중 26번째
12) GCEE Annual Report(2022), "Securing skilled labour: Options for action in continuing education and labour migration"

3 독일의 대응

에너지 가격 제한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전기 및 가스가격 상한제 마련**

- 2023년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전기가격은 kWh 당 0.13유로, 민간 가계 및 소규모기업은 kWh 당 0.4유로로 가격 상한제 도입
-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스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은 kWh 당 0.07유로, 그 밖에 중견기업, 소규모기업, 민간 가계는 kWh 당 0.12유로의 가격상한제 도입

■ **재생에너지법 2023(EEG 2023)[13]을 통하여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

-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생산
- 태양광, 풍력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그린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을 위한 펀딩 조성

2023년 6월에 전문인력 이민법[14]을 제정하여 고숙련 노동자 확보 노력

■ **독일에서 발행하는 EU 블루카드[15]의 최소 소득요건을 연간 43,800유로(기존 58,400유로)로 낮추고, 노동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군(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IT 전문가)은 소득요건을 연간 39,687유로 수준으로 더 낮춤**

■ **EU 내 다른 국가에서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별도의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EU 국가에서 블루카드로 12개월 이상 체류한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독일에서 장기 거주 가능**

■ **학생 비자로 들어온 제3국 국민의 취업 가능성을 확대하며, 제3국 국민도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독일에 입국 가능**

13) 재생에너지법 2023 ; Erneuerbare-Energien-Gesetz 2023, Renewable Energy Act 2023
14) 전문인력 이민법 :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Immigration Act for Skilled Worker
15) 비EU 고숙련 노동자를 위한 유럽연합의 취업 허가증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12월호 통권 제40호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038-07
ISSN	2950-922X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